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불황기 보험산업 지표의 특징 비교와 시사점
중국 보험시장 현황 및 외국계 보험회사 진출사례

◆ 보험산업 개관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노동부,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2006년 도입 예정
금감원, 보험회사에 대한 자율규제제도 시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 시행 등 제도 개선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지급기준 발표
변액유니버설보험 인기

◆ 해외보험동향

미국 동향
EU 동향
일본 동향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불황기 보험산업 지표의 특징 비교와 시사점	1
중국 보험시장 현황 및 외국계 보험회사 진출사례	10
보험산업 개관	23
보험산업 환경	26
1. 해외 경제	26
2. 국내 경제	28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30
보험지표동향	32
1. 보험산업 총괄	32
2. 생명보험	34
3. 손해보험	45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56
1. 노동부,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2006년 도입 예정	56
2. 금감원, 보험회사에 대한 자율규제제도 시행	60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 시행 등 제도 개선	62
4.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지급기준 발표	65
5. 변액유니버설보험 인기	67
해외보험동향	69
1. 미국 동향	69
2. EU 동향	74
3. 일본 동향	77
통계표	84

테 마 진 단

◆ 불황기 보험산업 지표의 특징 비교와 시사점

이태열 동향분석팀장
신동현 연구원

가. 3차례 불황기와 보험 산업

최근 보험시장에는 내수 불황의 장기화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과거 불황기에 나타난 보험산업 주요 지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최근 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히 파악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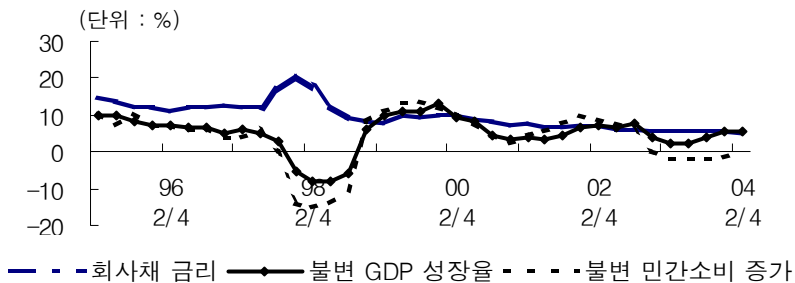
- 과거 불황기에 나타난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최근에 진행 중인 불황기 보험산업의 특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CY(calendar year)기준으로 1998년, 2001년, 2003년 이후의 3차례 기간을 불황기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¹⁾.
 - 1998년은 외환위기와 함께 시작된 대표적인 불황기이며, 1998년 4개 분기 동안 실질 GDP는 전년동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2001년에는 세계적인 경기 하락과 IT거품 붕괴의 후유증으로 4/4분기를 제외하고는 실질 GDP성장률이 3%대의 저조한 수준에 그침.
 - 2003년 이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불황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3년 1/4분기에 0% 가까이 하락한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금리의 경우 회사채금리(3년)가 외환위기와 함께 분기평균 20% 수준까지 큰 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하여 2003년 이후에는 평균 5% 수준

1) 본 고는 GDP, 민간소비의 추이를 중심으로 불황기를 임의로 설정하였으며 통계청의 공식 분류가 아님. 불황기 구분의 편리성 때문에 모든 년도를 보험산업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FY(fiscal year)가 아닌 CY(calendar year) 기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음.

으로 낮아짐.

- 2004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있어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의 하락과 이에 따른 장기성 보험의 역마진 구조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림 1> 주요 경제 지표 추이



□ 본 고는 생명보험의 개인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의 자동차 및 장기손해 보험에 대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비교함으로써 최근 불황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 생명보험은 개인보험을 사망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함.
 - 단체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소진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본 고는 연금이나 장기 예금적 성격을 갖는 보험을 저축성보험이라 정의하고 편의상 생존과 생사혼합을 합한 개념으로 사용하였음.
 - 또한, 사망보험과 저축성보험에는 각각 변액종신보험과 변액연금을 포함하여 분석하였음.
- 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약 85% 수준에 이르고 있어 비중이 작고 종류가 다양한 일반손해보험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성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험료(생명보험 : 수입보험료,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를 사용했으며, 수익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순수신이란 개념을 설정하여 사용하였음.

- 생명보험 순수신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보험금, 환급금, 배당금)을 차감한 것으로 사업비를 추가로 차감하면 보험영업수지와 유사한 개념이 됨²⁾.
- 손해보험 순수신은 경과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을 차감한 것으로 생명보험의 경우와 같이 사업비를 추가로 차감하면 보험영업수지와 유사한 개념이 될 수 있음³⁾.
- 본 고는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보험영업수지’의 개념을 도입할 수 있으나 사업비가 구조조정 등 보험시장의 여건과 관련 없는 요인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만큼 순수신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구조적인 수익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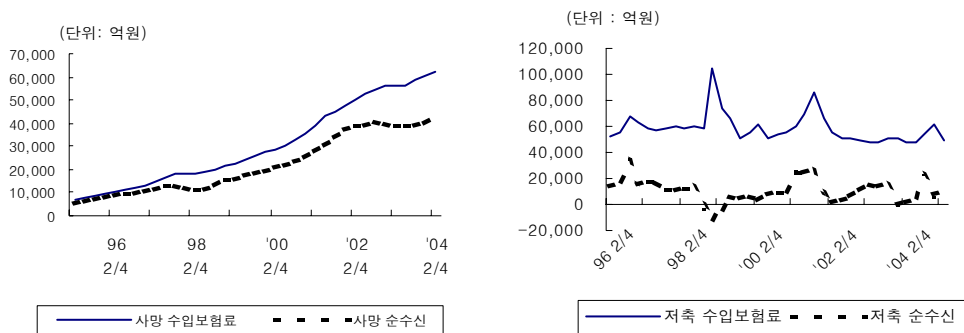
나. 생명보험 : 외환위기는 저축성, 2001년 불황은 사망보험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외환위기시에는 고금리를 이용한 생사혼합보험 판매로, 2001년에는 종신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망보험의 판매로 불황에 대응하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정체되고 있음.

- 외환위기 당시 고금리를 이용한 저축성보험의 판매는 수입보험료 증가에는 기여하였으나 수익성에 있어서는 취약했던 반면, 2001년 불황시 사망보험은 수입보험료 및 수익성 개선에 모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사망보험은 외환위기 및 2001년 불황기에 전체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나, 초회보험료와 순수신을 모두 포함할 경우 2001년 불황기의 실적 이 보다 양호했던 것으로 평가됨.
 - 사망보험은 CY1998 중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22.4%나 증가하였으나 초회보험료의 경우 4,297억원으로 전년도의 4,460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고, 순수신 규모는 수입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이 급증하면서 1.7% 소폭 감소한 4조 6,841억원 수준에 그침.
-
- 2) 생·손보 모두 사업비에 투자영업을 위한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보험영업수지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유사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임.
 - 3) 본 동향지의 ‘보험산업환경’에서 손해보험산업 순수신이란 개념을 원수보험료와 원수손해액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있어, 본 고 손보의 순수신은 경과순수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임.

- 반면, 2001년에는 전년 대비 수입보험료 35.8%, 순수신 37.5%, 초회보험료 82.5%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생명보험 산업의 불황 극복에 크게 기여함.
- 이는 종신보험 도입 초기의 선택효과가 작용하면서 우량물건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았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o 저축성보험(생존보험+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환급금 급증으로 순수신 규모는 오히려 하락했고, 이후에는 세계혜택부여기간의 변경과 외환위기 당시 가입한 상품의 만기도래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추이를 보임.
- 1998년 생사혼합보험을 중심으로 한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약 3조원에 육박하면서 전년비 24.9% 증가하였으나 해약환급금의 큰 폭 증가로 순수신 규모는 오히려 -4,140억원을 기록하였음.
- 1998년 수입보험료의 큰 폭 증가는 기존 계약 또는 생존보험 계약의 해약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외형적 판매 증가에 비해 실속이 없었음.
- 이후 2000년에 비과세기간 연장(5→7년)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 규모가 21.7%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1년 불황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간에서 전반적으로 수입보험료규모가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순수신 규모에 있어서도 정체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여 생명보험산업의 수익성에 별다른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함.

<그림 2> 생명보험 종목별 순수신 규모 추이



- 최근 생명보험시장의 회복세를 주도해 온 사망보험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향후 성장세를 주도할 뚜렷한 상품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 생명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력이 약화되고 있음.
- 사망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의 규모가 2000년 이후 사실상 정체되고 도입초기의 선택효과도 사라지면서 환급금과 보험금 지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입보험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신 규모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초회보험료의 경우 2001년 연간 1조 3,224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3년에도 1조 2,063억원에 그치는 등 성장여력이 둔화되고 있음.
 - 순수신 규모는 도입초기의 선택효과가 사라지면서 2001년 약 15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른 이후 정체되면서 2003년에도 15조 7천억원에 그치는 등 수익성에 있어 서도 정체되고 있음.
- 저축성보험의 경우 연금 수요를 중심으로 생존보험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생사혼합보험의 감소세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세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2003년 방카슈랑스의 도입과 비과세기간 연장(7→10년)에 따른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사혼합보험의 시장위축으로 2003년 전체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비 1.4% 증가하는 데 그침.

다. 손해보험 :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성장속에 자동차보험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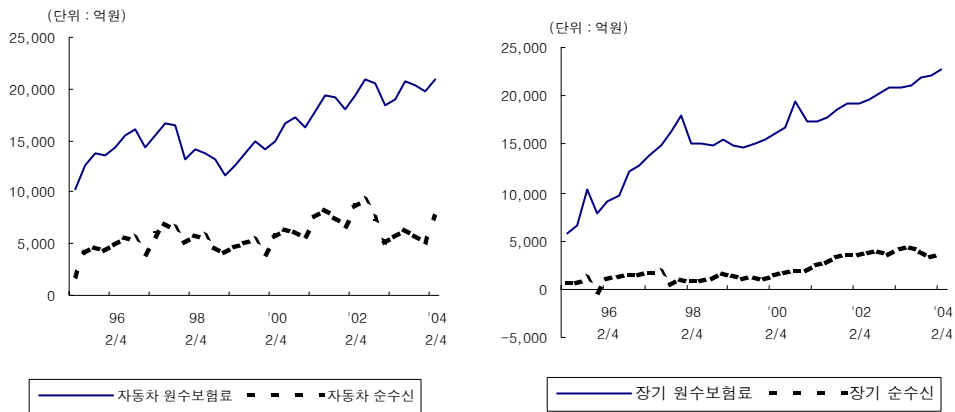
손해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장기상해보험에 의존하여 성장을 유지해 왔으며, 자동차보험은 요율자유화와 함께 사실상 시장포화상태에 진입함.

- 장기손해보험은 전반적으로 보험료의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요율자유화 이후 사실상 요율 변경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은 외환위기와 함께 급성장세가 중단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꾸준한 성

장세를 유지하여 손해보험산업의 불황극복에 크게 기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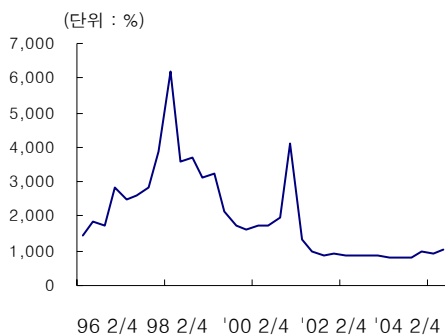
- 1998년에 9.0%, 2001년에는 4.6%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기록하여 불황기에도 전체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음.
- 다만, 1998년 순수신 규모는 범위요율의 도입에 따라 손해율이 90%를 넘어서면서 1997년 5,035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요율조정 과정에서 빠른 상승세를 보여 2001년에는 성장(원수보험료 4.6% 증가)과 수익(순수신 70.8% 증가)에 모두 기여함.
- o 자동차보험은 1998년 범위요율 도입 이후 사실상 정체상태에 진입했으며 그 결과 요율 변화가 성장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짐.
- 1998년 경기의 급속한 하락과 범위요율 도입에 따른 경쟁격화로 원수보험료는 13.6% 하락하고 손해율 상승으로 순수신규모는 9.2% 감소함.
- 1999년부터는 경기 회복과 플러스보험 등 고급형 상품의 도입으로 원수보험료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손해율은 오히려 악화되어 순수신 규모가 감소하다가 2001년에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표준요율 인상으로 오히려 원수보험료와 순수신 규모가 각각 16.1%, 31.5%의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순수신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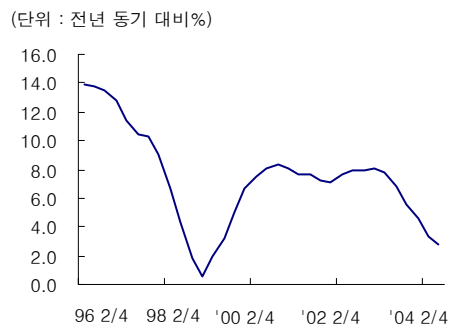


- 2003년 이후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도 개선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장이 크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손해보험은 수입보험료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환급금의 빠른 증가세에 따라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음.
 - 초회보험료의 경우, 2001년 이후 분기당 1,000억원 내외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안정적 성장기에 진입하고 있음.
 - 반면 순수신 규모는 손해율이 2003년 2/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2003년 3/4분기 79.7%→2004년 2/4분기 85.2%)하면서 정체되고 있으나 비교적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2003년 8.1%, 2004년 상반기 4.0%).
 - 자동차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구조적인 정체상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정한 손해율 유지를 위한 요율 조정에 의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좌우되는 상황임.
 - 2004년 들어 보험요율 인상의 영향으로 원수보험료가 증가하고 손해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이미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이 2002년 4/4분기 8.0%에서 2004년 2/4분기에는 2.7%에 그치는 등 시장 성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음.

<그림 4>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추이



<그림 5>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추이



라. 최근 보험산업 위기론의 실체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보험산업의 위기감은 현재에 특이한 실적악화가 발생하였다고 보다는 전반적으로 활력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불황기와 같이 회복세를 주도할 뚜렷한 대안이 없어 성장 지속이 불투명하다는 데 있음.

- 2003년 이후 보험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현상은 주요 종목에서 모두 성장성과 수익성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점임.
- 2003년 이후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와 순수신 추이를 볼 때 과거 외환위기와 2001년 불황기에 비해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국내보험시장이 구조적인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징조일 수도 있음.
 - 외환위기 당시 환급금, 손해액 등의 증가로 순수신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수입보험료 규모가 증가하는 종목이 많았다는 특징이 있음.
 - 2001년 불황기에는 저축성보험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성장성, 수익성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였음.
 - 2003년 이후에는 큰 폭의 시장 상황 악화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험산업의 주력이라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성장성, 수익성이 모두 한계에 이르는 정체 상태가 나타나고 있음.

<표 1> 최근 불황기 주요 종목 수입보험료 순수신 추이

구분		외환위기 (1998)	2001년 불황	2003년
사망	수입보험료	급증 22.4%(초회정체)	급증 35.8%	증가 10.4% (초회정체)
	순수신	정체 -1.67%	급증 37.5%	정체 1.3%
저축성	수입보험료	급증 24.9%	감소 -18.0%	정체 1.4%
	순수신	감소 -112.4%	감소 -76.4%	감소 -52.1%
장기손해	원수보험료	증가 9.0%	증가 4.6%	증가 7.4% (초회정체)
	순수신	감소 -25.1%	급증 70.8%	증가 8.1%
자동차	원수보험료	감소 -13.6%	증가 16.1%	정체 -0.7%
	순수신	감소 -9.2%	급증 31.5%	정체 -28.5%

주 : 2003년 자동차보험 순수신의 경우 2004년 들어 요율인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정체된 것으로 평가함.

- 특히, 저금리기조의 심화, 은행의 보험산업 진출, 온라인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가격경쟁 심화 등 보험산업의 경영여건이 자산운용, 마케팅 등 전방위적으로 악화되면서 미래의 성장 지속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 미래의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보험의 도입이 과당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최근 도입 초기에 있는 변액보험과 2006년 도입이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경우 국내보험시장 성장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회에 극대화 노력하여야 할 것임.
 - 퇴직연금의 경우 기회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만큼 상대적인 경쟁력에 따라 성패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 변액보험은 자금운용능력에 따라 시장경쟁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자금운용과 관련한 고객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보험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만큼, 방카슈랑스, 온라인 보험 등의 영향에 따른 경쟁격화로 수익 악화 및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에 유의하여야 함.
 - 개인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등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보험 관련 종목이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정체기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무리한 마케팅 전략은 시장확대 효과보다는 수익성 악화 및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보험시장 현황 및 외국계 보험회사 진출사례

조혜원 선임연구원

이정환 연구원

가. 개요

중국 보험시장의 현황, 선진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의 중국 진출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인 국제 경쟁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중국 보험시장은 세계 각국의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에게도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 중국 보험시장은 경제 성장에 맞추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낮은 보험의식, 낙후된 상품 및 서비스, 협소한 판매채널, 시장경쟁의 미발달 등으로 미래의 성장잠재력이 아직 풍부한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국 보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로서는 시장 현황과 경쟁구도의 이해,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중국 보험시장 현황과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 규제 및 현황을 살펴보고, 성공적으로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의 사례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중국시장 진출 성공사례로는 주로 Manulife-Sinochem의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자료는 동사 웹사이트(www.manulife.com.cn) 및 Tian'an Insurance Co. Ltd내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 정리하였음.
 - 단, 개방의 정도와 외국계 보험회사 진출 사례 자료의 가용성을 검토한 결과, 분석의 대상을 생명보험에 국한하였음.

나. 중국 보험시장 현황

중국 보험시장은 경제성장에 맞추어 빠르게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밀도, 보험침투도 측면에서 볼 때 발전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최근 보험시장 현황>

- 중국 보험시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최근 20여년간 평균 30%대의 급속한 발전을 나타내었음.
- 2003년 중국의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3,879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27.1%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32.4% 증가한 3,010억위안을 나타내었으며,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77.6%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팽창하고 있음.
 - 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869억위안의 보험료 수입을 나타내며 최근 몇 년간 10%대의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표 1> 중국 생손보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위안)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보험료	성장율	보험료	성장율	보험료	성장율	보험료	성장율
생명보험	997	14.3%	1,424	42.8%	2,275	59.8%	3,010	32.4%
손해보험	598	14.8%	685	14.6%	778	13.6%	869	11.7%
전체	1,596	14.6%	2,109	32.1%	3,053	44.8%	3,879	27.1%

자료 : 保險毎日新聞, “急成長する中國保險市場 ①”, 2004.7.16.

- Swiss Re가 발간한 『World insurance in 2003(Sigma No3/2004)』에 따르면, 2003년 중국 전체 수입보험료는 469억 1천만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하였으며, 생명보험이 324억 4천만 달러로 8위, 손해보험은 144억 7천만 달러로 13위를 기록함.
- 중국 보험시장은 외형적 시장규모와 급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보험밀도(insurance density, 1인당 수입보험료)나 보험침투도(insurance penetration, 국내총생산 대비 수입보험료) 등을 살펴볼 때 선진국은 물론 여타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발전 정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2003년 중국의 보험밀도는 36.3달러(생명보험 25.1달러, 손해보험 11.2달러)로 세계 71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 평균 보험밀도인 59달러에도 못미치는 수준임.
- 보험침투도 역시 3.33%(생명보험 2.30%, 손해보험 1.03%)로 세계 44위를 나타냄.

<표 2> 세계 보험시장에서의 중국

순위	국 가	보험료 (백만달러)	순위	국 가	보험밀도 (달러)	순위	국 가	보험침투도 (%)
1	미 국	1,055,498	1	스위스	5,660.3	1	남아공	15.88
2	일 본	478,865	2	영 국	4,058.5	2	영 국	13.37
3	영 국	246,733	3	일 본	3,770.9	3	스위스	12.74
4	독 일	170,811	4	아일랜드	3,669.5	4	대 만	11.31
5	프랑스	163,679	5	미 국	3,637.7	5	바르바도스	11.29
6	이탈리아	111,761	6	덴마크	3,116.0	6	일 본	10.81
7	한 국	59,758	7	네덜란드	3,094.0	7	벨기에	9.77
8	캐나다	59,144	8	벨기에	2,875.7	8	네덜란드	9.77
9	네덜란드	50,266	9	핀란드	2,714.5	9	한 국	9.63
10	스페인	47,014	10	프랑스	2,698.3	10	미 국	9.61
11	중 국	46,911	71	중 국	36.3	44	중 국	3.33

자료 : Swiss Re, 『World insurance in 2003』, Sigma No3/2004, 2004.

다. 외국계 보험회사의 중국진출 현황 및 규제

1992년 최초로 외국계 보험회사에 시장을 개방한 이래, 2001년 WTO 가입을 계기로 본격적 경쟁체제에 돌입하였으며, 대부분 합자회사 형태로 진출해 있음.

<WTO 가입 이후 외국계 보험회사의 중국진출 규제>

- 2001년 12월 중국은 WTO 가입 확정을 통해 보험시장의 대외 개방 일정과 외국 보험회사의 중국내 활동 범위를 발표하였음.

○ 기업형태

- 2001년 12월 : 생명보험은 외자 점유비율 50% 미만의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외국 기업에 합자대상 선택권을 부여하며, 손해보험은 외국 기업의 분/지점 설립이 가능하고 외자 점유비율 51%의 합자회사 설립이 가능함.
- 2003년 12월 : 손해보험은 외자비율 100%인 독자 자회사 설립이 가능함.

○ 영업지역

- 2001년 12월 :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따리엔(大連), 선전(沈圳), 포산(佛山) 등 5개 지역
- 2003년 12월 : 베이징(北京), 청두(成都), 충칭(重慶), 푸저우(福州), 쑤저우(蘇州), 샤먼(廈門), 닝보(寧波), 선양(沈陽), 우한(武漢), 톈진(天津) 등 10개 지역
- 2004년 12월 : 지역제한 철폐

○ 인가제한

- 영업인가 조건은 ① WTO 가입국이면서 해당 보험업종 종사 경력 30년 이상, ② 중국 내 대표사무소 설립후 2년 이상 경과, ③ 본사 자산규모 US\$50억 이상으로 제한함.

○ 상품제한

- 2003년 12월 : 개인생명보험 판매가 가능함.
- 2004년 12월 : 건강보험, 단체보험 및 연금보험 판매가 가능함.

〈외국계 보험회사의 중국진출 현황〉

□ 외국계 보험회사에게 가장 먼저 개방된 지역은 상하이로, 미국의 AIA(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가 1992년 최초로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하였음.

- 생명보험시장은 「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이 발효된 이후 Manulife, Aetna, Allianz, AXA-UAP 등이 외자 51%의 비율로 설립되었고, WTO 가입 이후 보험시장 개방이 본격화되었음.
- 손해보험시장은 생명보험과 달리 2003년 이후 중국내 독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대부분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진출하였음.

<표 3>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중국진출 현황

회사명	현지회사명	국명	영업지역	진출시기
AIA	美國友邦保險	미국	상하이, 광저우, 선전, 포산	1992. 9
			베이징, 쑤저우	2002. 6
			東莞, 江門	
Manulife	中宏人壽保險	캐나다	상하이	1996.11
			광저우	2002.10
			베이징	2003.10
Aetna	太平洋安泰人壽保險	미국	상하이	1998.10
			광저우	2004. 2
Allianz	安聯大衆人壽保險	독일	상하이	1999. 1
AXA_UAP	金盛人壽保險	프랑스	상하이	1996. 6
			광저우	2001. 9
Colonial	中保康聯人壽保險	호주	상하이	2000. 8
Prudential	信誠人壽保險	영국	광저우	2000.10
			베이징	2003. 8
John Hancock	恒康天安人壽保險	미국	상하이	2001. 2
Sun Life	光大永明人壽保險	캐나다	톈진	2002. 6
			베이징	2003.10
ING	首創安泰人壽保險	네덜란드	파리엔	2002.11
Generali	中意人壽保險	이탈리아	광저우	2002. 2
			베이징	2004. 2
CGU	中英人壽保險	영국	광저우	2003. 1
CNP		프랑스	미정	2001. 9
Ageon	海康人壽保險	네덜란드	상하이	2001. 9
日本生命	廣電日生人壽保險	일본	상하이	2003.11
New York Life	海爾紐約人壽保險	미국	상하이	2002.12
Metropolitan Life	中美大都會人壽保險	미국	베이징	2001.12
CIGNA	招商信諾人壽保險	미국	선전	2003. 9
Standard	恒安標準人壽保險	영국	톈진	2002.11
Skandia	瑞泰人壽保險	스웨덴	베이징	2004. 1

자료 : 保險毎日新聞, “急成長する中國保險市場 ④”, 2004.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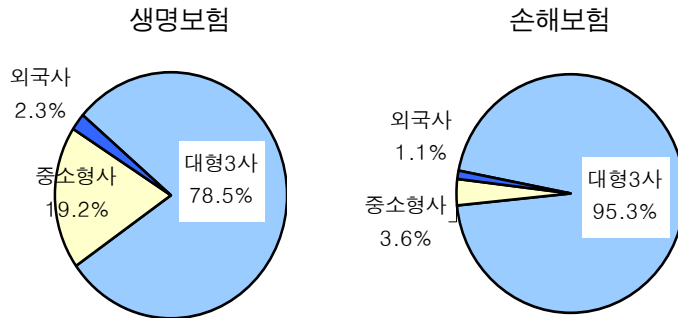
<표 4>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중국진출 현황

회사명	현지회사명	국명	영업지역	진출시기
香港民安	香港民安保險	홍콩	선전 등	1982
AIU	美亞保險	미국	상하이, 광저우 등	1992
東京海上	東京海上火災保險	일본	상하이	1994
Winterthur	瑞士豐泰保險(亞州)	스위스	상하이	1997
Royal&Sun Alliance	英國皇家太陽聯合保險	영국	상하이	1998
Chubb	美國聯邦保險	미국	상하이	2000
三井住友海上	三井住友海上火災保險	일본	상하이	2001
삼성화재	三星火災海上保險	한국	상하이	2001
Zurich		스위스	미정	2001
Allianz		독일	광저우	2002
損保Japan	日本財産保險	일본	파리엔	2003
Liberty		미국	충칭	2004

자료 : 保險毎日新聞, “急成長する中國保險市場 ①”, 2004.7.16.

- 중국 보험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다가 경쟁체제, 특히 외국계 보험회사가 진입한 시간이 얼마되지 않아 외국계 보험회사의 영업실적은 아직까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중국 보험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2004년 상반기 실적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내 보험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97.7%, 손해보험의 경우 98.9%로 절대적임.
- 외국계 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2.3%, 손해보험은 1.1%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회사별로는 AIA 1.26%, Aetna 0.18%, Prudential 0.18%의 점유율을 보이고 손해보험의 경우 AIU 0.35%, 東京海上 0.16%, 三井住友海上 0.09%의 점유율을 보임.
- 생명보험은 외국계 보험회사 중 중국시장을 선점한 AIG 그룹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며, 손해보험은 일본계 보험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중국 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현황(2004년 상반기)



자료 : 한국보험신문, “올해 상반기 중국 보험사 실적 분석”, 2004.9.13.

라. 외국 보험회사의 진출 사례(Manulife-Sinochem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최초의 합자회사인 Manulife-Sinochem의 사례를 통해 볼 때, ① 합자회사 파트너 선정, ② 전문적이고 안정적 경영, ③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④ 철저한 모집조직 관리, ⑤ 광고 및 기업이미지 제고 등이 성공전략으로 분석됨.

- 중국 보험시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상하이 지역을 외국계 보험회사에 처음 개방하고, 시장 규모 측면에서도 상하이 지역이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동 지역을 분석 대상으로 함.
- 상하이 지역은 외국계 보험회사에 최초로 개방된 지역으로서, 1992년 캐나다 보험회사인 Manulife가 합자회사 형태로 진출하였고, 중국 보험감독규정에 따라 3년 후인 1996년부터 실질적 영업을 시작하였음.
- 보험시장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상하이를 둘러싼 장쑤성(江蘇省) 지역이 2002년 기준 전체 수입보험료의 10.1%를 거둬들여 1위를 차지했고 상하이는 8.6%로 2위를 차지함으로써 상하이 및 그 외곽 지역이 중국 보험시장의 약 20%를 점유함.
- 2001~2003년간 상하이 지역의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 외국계 생명보험회사는 AIA, CPIC-ING, Manulife-Sinochem으로서 Manulife는 2.07%의 비중을 차지하여

규모면에서 3번째의 영업실적을 나타냄.

- o Manulife-Sinochem는 성공적 영업실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적 경쟁상대로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표 5>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수입보험료 및 설계사 수(2003년)

(단위 : 백만 위안)

채널별 상하이지역	설계사수	설계사		방카슈랑스		단체보험		전체	
		보험료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보험료	구성비
AIA	4,729	1638.49	53.83%	30.81	0.56%	-	0.00%	1669.30	7.26%
CPIC-ING	6,361	505.59	16.61%	103.37	1.88%	-	0.00%	608.96	2.65%
Manulife-sinochem	3,332	475.78	15.63%	-	0.00%	-	0.00%	475.78	2.07%
AXA-minmetals	N/A	118.62	3.90%	0.37	0.01%	-	0.00%	119.00	0.52%
Allianz Dazhong	1,106	154.74	5.08%	11.81	0.21%	-	0.00%	166.55	0.72%
John Hancock	729	46.03	1.51%	0.39	0.01%	0.003	0.00%	46.42	0.20%
CMG-China Life	413	38.23	1.26%	1.25	0.02%	-	0.00%	39.48	0.17%
Taiping	474	39.77	1.31%	947.92	17.23%	223.31	99.83%	1211.00	5.26%
Haier New York Life	628	22.32	0.73%	59.25	1.08%	0.39	0.17%	81.96	0.36%
Aegon-CNOOC	N/A	4.49	0.15%	1.51	0.03%	-	0.00%	6.01	0.03%
전체	17,772	3044.07	100%	5501.53	100%	223.70	100%	23001.16	100%

자료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China Statistical Year Book 2003』, 2004.

<합자회사 파트너 선정>

□ 성공적인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독당국과의 양호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비보험권 기업과의 합자가 중요함.

- o Manulife-Sinochem은 보험권과 관계없는 중국계 기업과 외국계 보험사가 짝을 이룬 합자회사로 경영권의 독립성과 시너지 효과에 힘입어 성공하였음.
 - Manulife의 파트너인 Sinochem은 보험권과 관계없는 기업으로서 합자회사에 대해 50%의 지분만 소유할 뿐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Manulife는 경영에 자율권을 가짐.
 - 반면에, CMG-China Life, John Hancock, Allianz-Dazhong은 중국계 보험사를 파트너로 받아들인 경우로 경영의 자율성 제한이 이들의 성공을 방해한 것

으로 평가됨.

- 또한, Sinochem은 석유·화학 분야에서 대국민 이미지가 좋으며 감독당국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Manulife 합자사의 대 소비자 이미지 구축에 도움을 받았으며, 감독당국의 신뢰 속에 신상품 개발 및 판매에 주도적 입장을 고수할 수 있었음.
- 그밖에 Haier New York Life의 Haier 그룹은 중국 내에서 일류가전제품 생산 업체로서 기존에 쌓아왔던 좋은 이미지와 정부와의 밀접한 관계는 합자사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줌.

〈경영전략〉

-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영노하우를 활용하여 판매중심의 공격적 경영보다는 중국 경제 및 보험환경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전략을 구사함.
- Manulife는 인력구성, 판매채널, 보험요율 등 다방면에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보험대내외적 환경 변화에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캐나다, 미국, 아시아 국가로부터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중국에 투입함으로써 소비자 및 시장에서 Manulife의 전문적 이미지를 구축함.
- 또한 방카슈랑스에 의한 판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역선택으로 인한 문제를 제거하였고, 일시납보험료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전략을 고수하였음.
- 투자연동형 상품이 판매되면서 기타 합자사는 5~7%의 예정이율을 약속한 반면, Manulife는 4%이하의 예정이율을 고수함으로써 1997~1999년 동안 7차례에 걸쳐 단행된 이자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역마진에 처해지지 않음.
- 이에 반하여, CPIC(China Pacific Insurance Company)-ING의 전신인 Pacific Aenta는 설계사의 인적관계를 이용하는 공격적 경영을 시도하였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경영전략으로 인해 향후 손실이 예상됨.
- CPIC-ING는 많은 수의 설계사를 채용하고 종신건강보험을 2002년 최초로 개발·판매하였으나 결국 취약한 의료시스템과 의료관련 모럴해저드의 대량 발생

으로 종신보험판매가 중지되었으며, 기관매된 종신건강보험으로 손실이 예상되고 있음.

- o 또한, Aegon-CNOOC는 방카슈랑스를 전문으로 공격적 경영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시납보험료 수입으로 인해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업 실적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설계사 관리 전략〉

- 중국 보험시장 개방으로 과거 대리점 위주에서 설계사 위주의 판매전략으로 전환됨에 따라, 설계사 이탈방지 및 전문성 확보 등 철저한 설계사 관리를 통한 마케팅 전략이 중요시됨.
- o Manulife는 모집인 판매채널만 운용하는 보험사로서 이들의 전문성 제고와 이탈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자격을 갖춘 설계사를 채용하기 위해 까다로운 선별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교육을 위해 강도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동기부여를 위한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그 결과로 Manulife는 설계사 일인당 평균수입보험료는 합자사 중 최고 수준인 142,800위안을 기록하고 있으며, 3,000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낮은 설계사 이탈율을 나타냄.
- o 이러한 설계사 조직을 통해 Manulife는 합리적 상품설계 및 소비자 홍보를 통한 지속적 소비자 충성도를 제고하고 있음.

〈상품개발 전략〉

- Manulife는 기존 단체보험 위주의 중국 생명보험 시장에서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 감독당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음.
- o Manulife는 파트너인 Sinochem과 중국 감독당국의 밀접한 관계에 힘입어 다른 합작사보다 먼저 신상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얻음으로써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

려왔음.

- Manulife는 의료, 교육, 퇴직연금 등 전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험니드를 최초로 패키지화하였으며,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를 배당상품화하여 판매하였음.
- 특히, 배당상품 개념은 영업이익을 소비자와 누림으로써 CPIC-ING가 겪었던 의료보험에서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였음.

<광고 및 기업이미지 전략>

- Manulife는 자사의 발전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존의 전문성 이미지에 추가하여 상품판매와 연계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음
- Manulife는 암퇴치기금마련 운동을 지난 4년 동안 적극 후원하여 상하이 지역 뿐만 아니라 베이징 및 추후 진출하고자 하는 광저우 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외국계기업의 수익은 전부 해외로 유출된다는 통념을 깨고, 그 수익이 다시 중국 내로 환원되어 지역의 발전에 쓰일 수 있다는 이미지를 확보하였음.
- 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 발맞추어 Manulife는 방학 기간 동안 불특정 대상의 유아 및 어린이 캠프를 매년 개최하였고, 이를 통해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건강·교육보험의 기존 계약자 이탈을 방지했고 신규계약을 유도해 왔음.

마. 시사점

향후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중국 보험시장에의 진출이 요구되며, 대외신인도가 높은 비보험권 기업과의 합자를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만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세부 전략이 필요함.

- WTO 가입에 따른 보험시장 개방에도 불구하고, 중국 보험시장은 당분간 국내 보험 회사 위주의 성장이 예상되나, 향후 보험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풍부함을 감안할 때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출에 따른 시장성은 충분할 것임.

- 현재 중국내 외국계 보험회사수는 총 30개사로(생명보험회사 19개, 손해보험회사 11개사)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1~2%대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중국 보험시장은 국내 보험회사가 주도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보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3%에 불과하고 개발도상국이 3.78%, 선진국의 경우 9.21%인 것과 비교할 때 중국 보험산업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니는 과언이 아님.
-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경우 1995년부터 중국진출을 시작하여 삼성화재의 손해보험업인가를 비롯하여 보험회사 사무소 설치, 운영 등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 국내 보험회사의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우선 기진출한 선진 외국계 보험회사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이며, 이들과 차별화된 우리만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략 구사가 요구될 것임.
- Manulife 생명의 중국 진출 사례를 통해 볼 때, 중국 보험시장의 성공적 진출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비보험권 기업과의 합자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
- 대국민 이미지가 양호하고 감독당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파트너로 선정함으로써 상품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확보에도 기여할 것임.
- 또한, 비보험권 기업과의 합자를 통해 독자적 경영권을 확보하여 전문적, 자율적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Manulife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세부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판매유통에 있어서의 최대 강점인 전문 모집조직 양성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함.
 - 중국 보험시장은 외국계 보험회사의 진입으로 기존의 대리점 방식에서 설계사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개인보험 상품 판매를 통한 보험산업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Manulife 생명은 특히 모집조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장진출에 성공함.
 - 중국은 '인맥'을 중시하는 풍토임을 염두에 두고, 모집조직의 전문화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컨설턴트 역할 수행 등 효율적 판매전략 수립이 요구됨.

- 둘째, 동일 문화권 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중국 국민의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
 - Manulife 생명은 중국 보험시장 진입 단계별로 가족의 모든 보험 니즈를 담보하는 가족형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개인성 보험에서의 성장을 초래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같은 동양권 국가로서 선진 외국의 상품을 동양 문화차원에서 재검토,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상품과 차별화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셋째, 한-중간 경제교류를 활용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적극적 홍보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중국내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는 등 한-중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험가입과 현지 기업들의 활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내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홍보전략이 필요함.

보험산업 개관

방카슈랑스 도입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크게 기여했으나 국내 중소형사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음. 중소형사 온라인 보험의 경우 시장점유율 확대가 전통 채널의 위축으로 상쇄 되는 것으로 나타남.

<전체 시장점유율>

- 전체적인 시장점유율은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축소와 외국사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는 반면,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의 확대와 중소형사의 감소로 특징지을 수 있음.
-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외국사의 점유율이 방카슈랑스 도입과 더불어 더욱 확대되어 FY2004에 15%대에 진입한 반면, 국내 중소형사는 14%대에서 정체됨.

<표 1> 생명보험산업 회사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상위 3개사	78.0	75.8	72.0	74.2	71.7	71.5	71.0	70.1
외 국 사	8.0	10.5	13.6	12.5	14.0	13.0	14.9	15.5
국내중소형사	14.0	13.7	14.4	13.3	14.3	15.5	14.2	14.4

-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국내 중소형사들이 온라인보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시장점유율 확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손해보험산업 회사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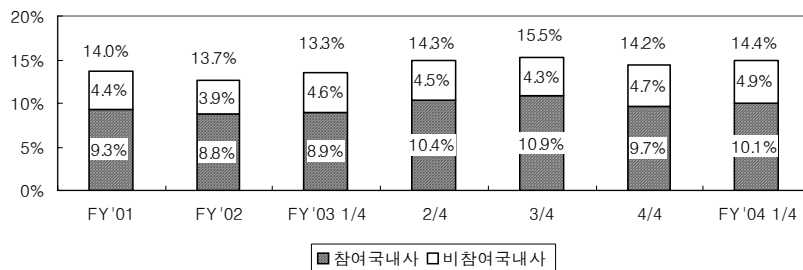
구 분	FY2001	FY2002	FY2003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상위 4개사	68.8	70.0	70.3	69.8	70.4	70.6	70.6	71.0
외국사	0.6	0.7	0.9	0.8	0.8	0.9	0.9	1.0
국내중소형사	26.7	24.6	24.3	24.6	24.4	24.3	24.3	23.7

<방카슈랑스와 생명보험 중소형 및 외국사의 시장판도>

□ 방카슈랑스의 참여는 외국사의 경우 시장점유율의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반면, 국내중소형사의 경우 별다른 효과가 없어 방카슈랑스의 혜택이 외국사에 집중됨.

○ 국내 방카슈랑스 참여사는 도입 초기인 FY2003 2/4, 3/4분기에 점유율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건수위주의 시장확보와 은행으로부터의 소외에 기인함.

<그림 1> 국내중소형사 방카슈랑스 참여사와 비참여사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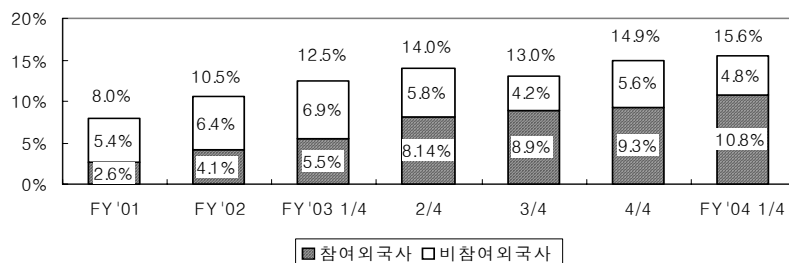


주 : 시장점유율은 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의 비중임.

□ 외국사의 경우 최근의 점유율확대와 방카슈랑스 참여사와 비참여사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 방카슈랑스가 외국사에게는 중요한 시장 확대 수단이 됨.

○ 방카슈랑스 참여 외국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FY2003 1/4분기 5.5%에 불과하였으나 FY2004 1/4분기에는 10.8%로 두배 가까이 확대됨.

<그림 2> 외국사 방카슈랑스 참여사와 비참여사 시장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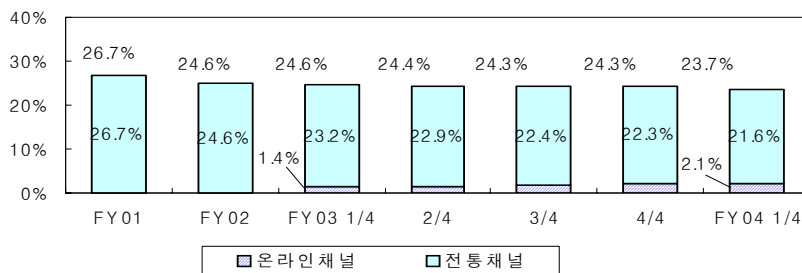


주 : 상동

<온라인과 손해보험의 중소형사 시장판도>

- 국내 중소형사는 온라인채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채널 판매 점유율 하락이 더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전체 손해보험에서 중소형사가 온라인으로 판매한 비중은 FY2003 1/4분기 1.4%에서 FY2004 1/4분기에는 2.1%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전통채널에서의 판매가 23.2%에서 21.6% 감소하면서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도 하락함.

<그림 3> 중소형사 손해보험시장 점유율 추이



주 : 점유율은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에서의 비중임.

- 자동차보험시장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소형사 온라인판매의 점유율 확대가 전통채널 판매의 점유율 감소와 상쇄되어 전체 점유율에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자동차보험에서 중소형사 온라인판매의 점유율은 FY2003 1/4분기 3.6%에서 FY2004 1/4분기에는 5.7%로 확대되었으나 전통채널의 판매 점유율은 같은 기간 27.2%에서 25.2%로 감소하여 전체점유율은 30.8%에서 30.9%로 거의 동일함.

<표 3> 국내중소형사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FY'03 1/4	FY'03 2/4	FY'03 3/4	FY'03 4/4	FY'04 1/4
전통채널	27.2	27.1	25.9	26.4	25.2
온라인채널	3.6	3.8	5.0	5.2	5.7
중소형사 전체	30.8	30.9	30.9	31.6	30.9

(동향분석팀)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중국 경제의 호황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미국 경제의 경기 확장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미국 금리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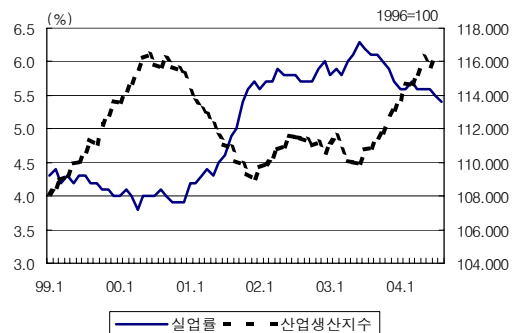
- 중국은 긴축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과 EU경제도 완만하나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음.
- 미국의 산업생산은 2003년 하반기 이후 급증세를 지속했으나 2004년 5월 이후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음.
 - 실업률의 경우 2004년 들어 5.6% 전후의 수준이 지속되었으나 8월에는 5.4%로 하락하여 고용 여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경기선행지수가 5월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ISM제조업 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도 8월에 들어 하락하면서 향후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중국 경제는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고정 투자 증가율이 5월 이후 전년동월비 40%대에서 3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9%대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표 1> 주요지역 성장률 추이

구분	2001 연간	2002 연간	2003 연간	2004 (전기대비연율 %)	
				1/4	2/4
미 국	0.5	2.2	3.1	4.5	3.0
일 본	0.4	-0.3	2.7	1.6	0.4
중 국	7.3	8.0	9.1	9.8	9.6
EURO	1.6	0.9	0.5	0.6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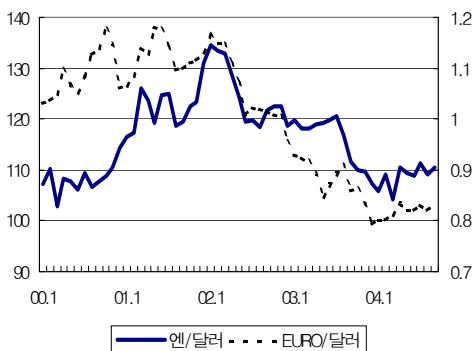
주 :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 미국의 생산과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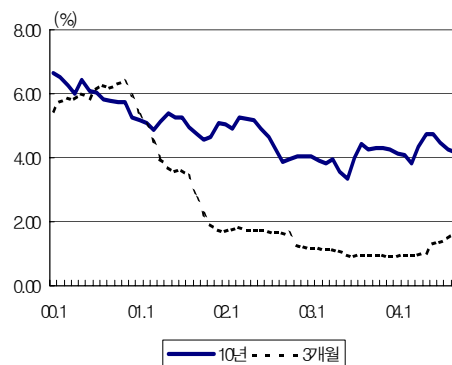
- 일본 경제는 2/4분기 들어 가계소비지출 증가율이 4%대로 상승하고 광공업생산 증가율도 평균 7% 전후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어 내수 중심의 비교적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EU의 경우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등 뚜렷한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0.5% 수준의 완만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세계 금융시장은 물가 불안 등에 대응한 미연준의 정책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의 상승세가 약화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미연준은 1년여의 미국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고 유가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목표금리를 1.0%에서 세차례에 걸쳐 1.75%로 상향 조정함.
 - 반면, 10만기 채무성 채권수익률은 6월평균 4.73%에서 9월 30일에는 4.12%로 하락함.
- 달러, 엔, 유로 등 주요 국제통화의 경우 5월 이후 상대적인 경제 여건의 차이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횡보하고 있음.
 - 5월 이후 엔/달러는 전반적으로 110 수준에서 그리고 Euro/달러는 1.2 (달러/Euro는 0.82)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임.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주 : 9월은 15일지표 사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3> 미국 국제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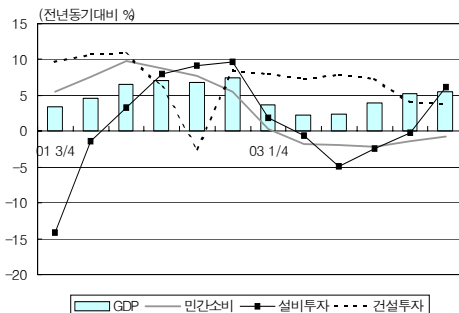
주 : 9월은 10일지표 사용
자료 : FRB St. Louis

2. 국내 경제

소비 및 건설 부문의 부진으로 내수 불황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로 ‘불황 속의 저금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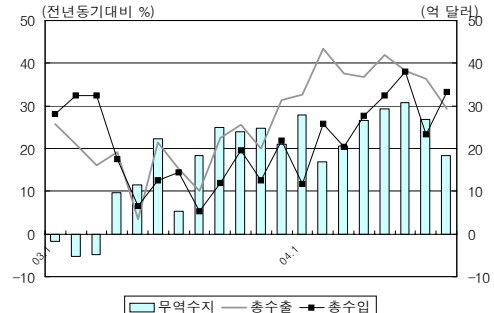
- 소비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율도 약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불황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음.
- 설비투자 증가율의 지표상 반등에도 불구하고 소비 감소세 지속과 건설부문의 위축으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1/4분기와 유사한 5.5%로 나타남.
 - 2/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0.7%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2003년 2/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2003년 중 평균 14%대를 기록했던 건축부문의 성장률이 2004년 1/4, 2/4분기에 각각 6.9%, 4.1%로 낮아지면서 전체 건설투자 위축을 주도함.
- 수출은 급증세를 보이던 중국향 수출이 다소 둔화되면서 전체 수출 증가율도 5월의 41.9%에서 8월에는 29.3% 전후로 둔화되었음.
 - 수출 둔화와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 증가로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2004년 2월 이후 처음으로 20억달러 이하로 하락하였음.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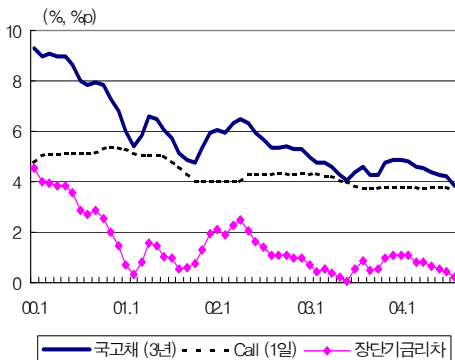
<그림 5> 대외 거래 지표 추이



자료 : 산업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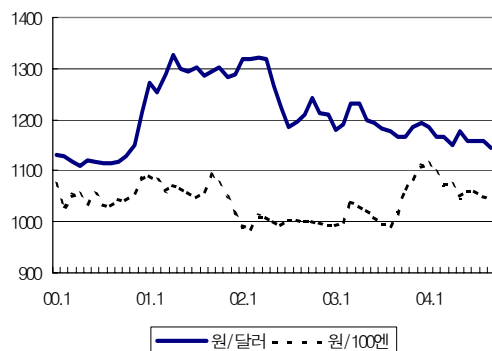
- 경기 부진과 콜금리 인하에 따라 금리 하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8월 한국은행의 단기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거의 소진된 상태임.
 - 콜금리 운용목표는 8월 12일 3.75%에서 0.25%p 하락한 3.5%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9월에는 물가 압력 등을 이유로 3.5%에서 고정됨.
 - 콜금리 1일물의 경우 8월 11일 3.77%에서 9월 17일에는 3.52%로 하락함.
 - 반면, 3년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경우 8월 11일 4.04%에서 9월 17일에는 3.57%까지 하락하여 장단기 금리차가 0.27%p에서 0.05%p로 축소됨.
 - 원화 환율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제수지 흑자 기조의 지속 등의 요인으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원/달러와 원/엔 환율은 2/4분기 이후 각각 1150, 10.5 수준에서 큰 변화없이 횡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태는 8월 중순이후 나타난 금리의 빠른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주 : 9월은 17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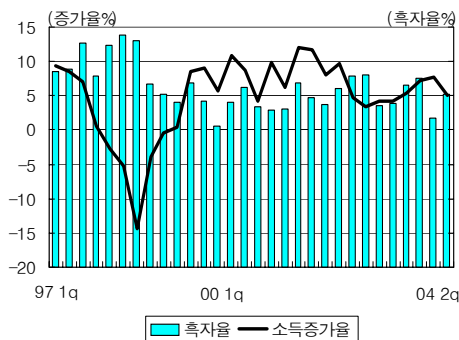
주 : 9월은 16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3. 가계 경제 및 시중 자금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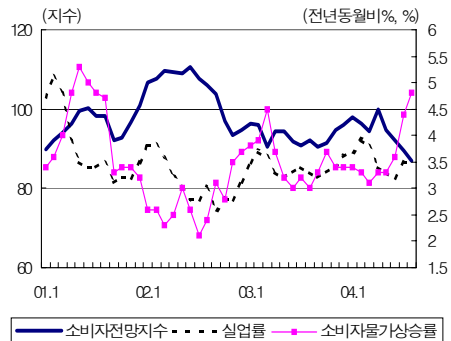
가계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시중자금은 금리 하락세를 감안하여 채권형 상품으로 유입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가계소득과 소비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고 있어 가계 경제 여건은 전반적으로 크게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임.
- 근로자가구의 경상소득증가율은 2002년 4/4분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왔으나 2004년 2/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0%(1/4분기 7.6%)를 기록하여 가계 소득 여건이 취약해졌음을 반영함.
 - 동기간 물가상승률은 평균 3.4%를 기록하여 실질가계소득증가율이 2%에도 못 미치는 상황임.
- 소비자 전망지수는 4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6월 3.2%에서 8월에는 3.4%로 상승함.
 - 국제 유가 및 농축수산물 물가불안으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여 5%에 육박하고 있음.

<그림 8> 소득, 흑자율 추이



<그림 9> 소비심리, 실업률, 물가



주 : 흑자율=(가처분소득-소비지출)/가처분소득
 자료 : 통계청

- 2004년 2/4분기(FY2004 1/4)중 시중자금은 큰 폭의 이동을 하지 않았으나 금리하락세의 지속에 따라 채권형 상품으로 이동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은 생존보험의 보험금 감소의 영향으로,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손해액의 감소 영향으로 2/4분기(FY1/4) 순수신 규모가 전분기 대비 약 1조 6천억원 가량 증가함.
 - 투신권의 경우 2004년 들어 금리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2/4분기 중 채권형 상품으로 3조 7천억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혼합형과 MMF에서의 자금이 탈로 투신사 전체로는 1조 4천억원의 자금이 유출됨.
 - MMF의 경우 2/4분기 자금이 순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하반기 이후 1년간 순유입액이 16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은행권의 경우 저금리에 따라 예금계정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에도 불구하고 CD발행을 통한 순유입이 5조원을 상회하면서 전체적으로 3조 7천억원이 유입됨.
- 내수 불황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의 2/4분기(FY1/4)순수신 추이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3/4분기(FY2/4) 가계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CY2003				CY2004	
	1/4	2/4	3/4	4/4	1/4	2/4
보 험	45,805	50,356	47,189	88,743	48,649	64,808
생명보험	30,629	34,893	34,893	74,824	37,604	48,549
손해보험	15,176	15,443	12,296	13,919	11,045	16,259
은 행	23,484	73,895	-30,594	189,814	-67,109	37,239
일반계정	45,937	144,380	1,512	221,476	-11,707	40,699
신탁계정	-22,453	-70,485	-32,106	-31,662	-55,402	-3,460
증 권	35,535	-2,503	-6,525	5,843	-5,145	5,049
투 신	-80,618	-90,539	63,286	-178,020	170,435	-14,380
종 금	24,512	-61,400	-21,375	-38,056	-55,402	7,090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임.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이태열 동향분석팀장)

보험지표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4 1/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노후 소득과 건강관련 보험상품 수요 증가로 성장세를 나타냄.

□ FY2004 1/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의 소폭 성장과 손해보험 이 회복세로 전년 동기대비 7.1%성장한 17조 6,933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로 인한 보험료 증가 등 생존보험과 변액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함.
- 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인상 및 전년 동기의 저성장에 따른 상대적 성장과 장기손해보험의 상해, 건강관련 보험에 대한 꾸준한 수요로 지속적 회복세를 보임.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2	FY2003					FY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490,668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3.6	-1.4	0.7	6.5	3.9	2.7	6.3
손해보험	205,944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10.2	3.4	2.6	3.6	5.6	3.8	9.0
합 계	696,614	165,167	167,527	211,837	173,136	717,668	176,933
	5.5	0.04	1.3	5.7	4.4	3.0	7.1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4 1/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은 생명보험 2.2%, 손해보험 1.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2.1% 성장에 그침.

- FY2004 1/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231조 389억원을 기록,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모두 자산의 증가율이 소폭에 그쳐 2.1%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191조 5,209억원으로 수입보험료의 소폭 증가와 투자수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준비금전입액의 증가로 전분기 대비 2.2%의 소폭 성장에 그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원수보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비용 확대로 보험영업수지가 악화되고 투자수지도 감소하여 전분기 대비 1.8% 증가한 39조 5,180억원을 나타냄.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종목	연도	FY2003					FY2004
	FY2002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명보험	1,642,225	1,692,543	1,741,212	1,832,379	1,873,615	1,873,615	1,915,209
	14.8	3.1	2.9	5.2	2.3	14.1	2.2
손해보험	353,683	361,677	369,919	378,639	388,229	388,229	395,180
	8.1	2.2	2.3	2.4	9.8	9.8	1.8
합계	1,995,908	2,054,220	2,111,131	2,211,018	2,261,844	2,261,844	2,310,389
	13.6	2.9	2.8	4.7	2.3	13.3	2.1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4 1/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12조 1,1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성장하면서 회복세를 보임.
 - 개인보험은 생존보험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8.7% 성장하는 회복세를 보였으나 방카슈랑스를 통한 초회보험료를 제외할 경우 2.4%의 저조한 성장을 함.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보험 수요 감소와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한 복지성 보험수요 감소가 맞물려 18.3% 감소한 8,262억원을 시현함.
- FY2004 1/4분기 총자산 규모는 191조 5,20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2% 증가함.
 - 보험료 증가에 따른 보험영업수지가 증가(25.7%)하고 기타수지 적자가 감소하였으나 준비금전입액이 증가하면서 총자산은 소폭 증가에 그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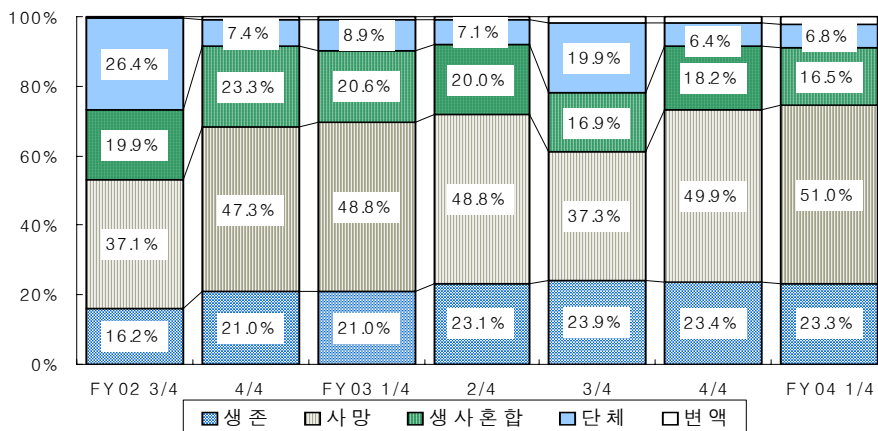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총 자 산	1,642,225	1,692,543	1,741,212	1,832,379	1,873,615	1,873,615	1,915,209
	14.8	3.1	2.9	5.2	2.3	14.1	2.2
수입보험료	490,668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3.6	-1.4	0.7	6.5	3.9	2.7	6.3

주 : 1)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의 비율은 전분기(총자산)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4 1/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51.0%를 넘어서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생존보험 23.3%, 생사혼합보험 16.5%, 단체보험 6.8%순으로 나타남.
- FY2004 1/4분기는 사망보험의 꾸준한 증가와 단체보험과 배당저축성보험의 수요 감소로 사망보험 점유율이 50%를 넘는 등 상품구성의 편중화 현상이 심화됨.
 - 사망보험은 변액보험을 포함한 종신보험의 꾸준한 증가로 특히 1분기 실적 구성비가 51.0%를 나타내어 과반수의 종목편중을 보임.
 - 생존보험 또한 노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대비의 니즈를 반영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하여 구성비가 23%대를 유지함.
- 당분기에는 무배당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48.7%를 넘고 금리연동형보험이 38.4%에 달하면서 전년에 이어 금리리스크 완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보험종목별로 종신보험 비중이 23.4%를 넘는데 이어 질병보험이 19.2%로 뒤따랐으며, 지난해 전체 0.4%에 불과했던 변액보험 비중이 2.3%로 상승했음.
 - 변액연금의 비중이 1.3%로 괄목할 만한 증가를 했으며 특히 기타로 분류되는 변액유니버설이 0.4%의 비중을 차지해 향후 성공할 가능성을 보임.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4 1/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11조 2,923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한 8,262억에 그침.
- 사망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여 6조 1,844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사망보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종신보험은 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하는 등 성장 여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종신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184.6% 증가하였음.
- 방카슈랑스 개방상품이 포함된 생존보험은 노후소득 마련 니즈의 지속적 증가와 방카슈랑스 채널에 의한 판매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함.
 - FY2004 1/4분기에 수요를 회복한 방카슈랑스채널 실적을 제외(초회보험료)할 경우 개인보험은 4.4% 증가에 그치며, 생존보험은 약 8.4% 증가에 그침.
- 생사혼합보험은 1/4분기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한 2조 28억원이 거수되었으며, 이는 지난 동기 15.2% 감소보다는 감소세가 줄어든 것이지만 방카슈랑스 채널에 의한 초회보험료를 제외할 경우 15.8% 감소해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 단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8,26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하여 FY2003 1/4분기 -37.3%보다는 다소 감소세가 완화되었음.
 - 그러나, 경제침체의 지속에 따라 후생복지 차원의 일반단체보험(-13.6%), 퇴직보험(-21.9%)의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를 분석하면, 건강보험이 전년 동기 대비 108.5%의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으며 변액연금 216.5%, 변액종신 84.2%, 종신보험 16.3% 증가한 반면, 상해보험이 -3.6%로 감소세가 지속됨.
 - 또한 유배당보험은 20.8% 감소한 반면 무배당보험이 14.8% 증가하여 보험상품의 무배당화가 심화되었음.
 - 금리연동형 보험이 26.9% 증가하고 변액보험이 202.8%나 증가하여 금리위험의 완화를 위한 상품전략 전개와 자기 책임의 투자형 상품이 성장하고 있음.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	보험료	91,424	23,901	26,555	37,028	28,192	115,676	28,266
	성장률	22.0	11.8	20.0	56.8	16.0	26.5	18.3
	구성비	18.6	21.0	23.1	23.9	23.4	23.0	23.3
사망	보험료	211,701	55,609	55,989	57,714	60,047	229,359	61,844
	성장률	21.4	10.5	6.3	7.0	9.7	8.3	11.2
	구성비	43.1	48.8	48.8	37.3	49.9	45.5	51.0
생사 혼합	보험료	110,392	23,465	22,985	26,139	21,916	94,505	20,028
	성장률	-14.1	-15.2	-14.5	-9.5	-18.7	-14.4	-14.6
	구성비	22.5	20.6	20.0	16.9	18.2	18.8	16.5
변액 보험	보험료	1,976	920	1,136	3,210	2,356	7,621	2,785
	성장률	-	887	682.7	372.6	122.5	285.7	202.8
	구성비	0.4	0.8	1.0	2.1	2.0	1.5	2.3
개인 계	보험료	415,493	103,895	106,665	124,091	112,510	447,161	112,923
	성장률	10.0	4.4	4.8	15.8	5.1	7.6	8.7
	구성비	84.7	91.1	92.9	80.1	93.6	88.7	93.2
단체	보험료	75,175	10,108	8,094	30,836	7,726	56,764	8,262
	성장률	-21.6	-37.3	-33.1	-19.6	-10.3	-24.5	-18.3
	구성비	15.3	8.9	7.1	19.9	6.4	11.3	6.8
합계	보험료	490,668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성장률	3.6	-1.4	0.7	6.5	3.9	2.7	6.3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4 1/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은 상위사의 비중이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외국사의 시장 확대로 지난 동기 대비 4.1%p가 감소한 70.1%로 하락했음.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의 선전과 TM·CM·홈쇼핑 등 새로운 판매채널을 통한 적극적 채널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p, 3.0%p 상승한 14.4%, 15.5%로 나타남.
 - 외국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들의 선전과 우량 외국사의 견실한 성장으로 점유율 증가가 지속됨.
 - 국내 중소형사 5개사는 방카슈랑스의 16.9%(초회보험료 기준)를 차지하면서 전체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신계약건수 기준으로는 48.3%를 차지하여 외국사의 55.0%(초회보험료), 21.6%(건수)와 대조되는 저가의 상품믹스를 보임.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상위 3개사	75.8	74.2	71.7	71.5	71.0	72.0	70.1
상위 9개사	92.3	91.4	89.9	87.7	89.0	89.4	88.4
외 국 사	10.5	12.5	14.0	13.0	14.9	13.6	15.5
국내중소형사	13.7	13.3	14.3	15.5	14.2	14.4	14.4
허편달지수	0.2271	0.2157	0.2015	0.1969	0.1993	0.2024	0.1935

-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편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4년 6월말 알리안츠 등 11개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4 1/4분기 당기손익(잠정치)은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가 모두 증가하고 기타 수지의 적자는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54.8% 증가함.

- 보험영업수지는 생존보험을 위시한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크게 증가(60.4%)함.
- 투자영업수지는 1/4분기중 주식시장은 저조하였으나 채권금리하락에 따른 투자영업수익이 개선되고 영업비용이 소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19.2% 증가한 2조 7,997억원의 흑자를 기록함.
- 또한, 지난 분기 과대 발생했던 기타 수지차의 손실이 완화되면서 총손익이 증가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의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4/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457,713	111,565	225,632	356,191	477,213	118,151
	투자영업	105,707	28,480	57,164	84,098	118,707	33,879
	기타	8,951	3,572	8,323	5,638	4,487	868
	계	572,371	143,617	291,119	445,928	600,407	152,898
총 비 용	보험영업	337,132	93,112	185,220	281,384	378,857	88,544
	투자영업	23,368	5,001	10,121	18,513	24,140	5,882
	기타	15,951	9,188	15,850	15,437	26,332	3,260
	계	376,451	107,301	211,191	315,334	429,329	97,686
수 지 차	보험영업	120,581	18,453	40,412	74,807	98,356	29,607
	투자영업	82,339	23,479	47,043	65,585	94,567	27,997
	기타	-7,000	-5,616	-7,528	-9,798	-21,845	-2,392
	계	195,920	36,316	79,928	130,593	171,078	55,212
준 비 금 전 입		160,325	28,134	61,671	109,932	149,949	42,688
법 인 세		7,275	96	187	187	5,255	8
당기순이익		28,320	8,086	18,069	20,474	15,874	12,517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증가와 지급보험금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9.5%p 개선되고 사업비율은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0.5%p 증가함.

○ 지급보험금은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 감소(24.0%)와 퇴직보험의 저축성 단체보험 지급보험금의 감소(42.1%)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2%가 감소함.

- 보험종목별로는 생존보험 기타로 분류되는 교육보험의 지급보험금이 17.9%, 퇴직보험이 14.2% 감소하는 등 규모가 축소되는 보험종목들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하였고, 사업비 지출에서는 생존보험 기타(74.5%), 생사혼합보험(21.4%)에서 증가함.

- 그동안 가계신용 불안의 확대 및 노동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생계형 실효·해약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계약유지에 힘쓰면서 해약률은 4.3%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신계약률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약률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보험금지급률	60.0	69.4	65.8	51.7	68.7	63.0	59.9
생 존	57.6	55.9	50.7	39.4	60.5	50.4	52.8
사 망	25.9	30.0	31.6	32.8	34.3	32.2	32.6
생사혼합	94.3	142.1	136.1	108.9	121.1	126.6	123.9
개 인 계	51.1	61.4	59.0	51.0	58.2	57.2	54.5
사 업 비 율	17.4	17.5	17.8	14.8	19.0	17.1	18.0
신 계 약 률	32.1	6.8	12.4	19.3	27.5	27.5	6.3
해 약 률	14.8	4.9	9.2	12.9	16.1	16.1	4.3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를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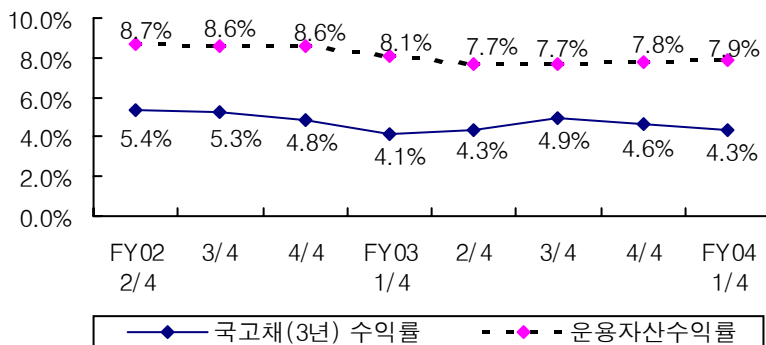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4 1/4분기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수익률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주식시장 불황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하여 7.9%를 기록한 반면, 장기보유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수익률 호조로 전기 대비 0.1%p 증가함.
- 유가증권 수익률은 경기침체에 따른 저금리 지속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정적 자산운용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한 7.5%를 기록함.
 - 상품유가증권 수익률은 증시 불황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2.9%p 감소한 반면, 투자유가증권 수익률은 장기보유 주식 및 수익증권 수익률 증가로 0.8%p 증가함.
- 전체 유가증권 수익률은 상품유가증권 수익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유가증권 수익률 증가로 전기 대비 0.5%p 증가함.
 - 투자수익증권 수익률 증가는 장기보유 주식과 수익증권의 수익률 호조에 기인하여 전기 대비 0.7%p 증가한 반면, 채권 수익률은 변동을 보이지 않음.

<그림 2>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운용자산의 투자수익률은 각 사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1/4분기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견지됨에 따라 채권 등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타 운용자산의 비중이 감소되는 추세임.

○ FY2004 1/4분기 현재 투자유가증권의 86%를 차지하는 채권은 그 보유 비중이 계속 증가해 왔으며 전년 동기 대비 4.7%p 증가하여 현재 45.4%에 달함.

○ 전년 동기 대비 상품유가증권 비중은 0.5%p 소폭 감소하여 현재 3.1%에 달함.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예금 및 예치금	2.1	4.1	1.9	3.4	2.1	2.9	1.8	3.1	1.8	3.1
유 가 증 권	51.2	7.7	52.3	7.0	53.7	6.9	54.8	7.0	55.6	7.5
○ 상품유가증권	3.6	20.1	3.7	10.3	3.2	11.3	3.3	11.0	3.1	7.2
- 주 식	0.1	115.0	0.2	66.5	0.2	82.5	0.2	79.5	0.2	9.8
- 채권 등	2.4	24.6	1.9	10.7	1.9	9.6	1.8	10.4	1.8	8.7
- 수익증권	1.3	6.7	1.6	5.8	1.2	8.2	1.3	6.6	1.1	4.5
○ 투자유가증권	47.6	6.7	48.6	6.8	50.5	6.6	51.6	6.8	52.5	7.5
- 주 식	4.1	2.7	4.2	3.7	4.6	2.9	5.0	5.5	4.7	8.2
- 채권 등	40.7	7.5	41.6	7.4	43.3	7.1	43.8	7.1	45.4	7.1
- 수익증권	2.9	2.1	2.9	2.6	2.6	4.5	2.7	4.2	2.5	12.4
대 출 채 권	28.6	10.1	27.9	10.3	27.0	10.3	26.1	10.6	25.4	9.8
부 동 산	5.7	3.2	5.5	3.2	5.3	3.3	5.2	4.1	5.0	4.9
운 용 자 산 계	87.6	8.1	87.6	7.7	88.1	7.7	88.1	7.8	87.9	7.9
비 운 용 자 산	12.4	-	12.4	-	11.9	-	11.9	-	12.1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7.5	100.0	7.5	100.0	7.2	100.0	7.6	100.0	7.8
	92.2		92.4		91.7		92.1		92.2	
특 별 계 정 자 산	7.8	-	7.6	-	8.3	-	7.9	-	7.8	-
총 자 산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총 자 산 규 모	1,692,543		1,741,212		1,832,379		1,873,615		1,915,209	

주 : 1)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자산별 투자수익률은 각 사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반계정 총투자수익률 계산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의 투자수익을 사용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4 1/4분기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규모 하락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수요 감소, TM·CM 등 기타채널의 비중축소로 방카슈랑스·설계사 채널이 주요 채널로 부각됨.
- 특징적으로 퇴직보험 수요의 감소에 따른 직급비중의 최저 감소와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감소 및 기타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채널 양극화 현상을 보임.
-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기타 채널의 비중 축소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실제로 보험설계사에 의한 초회보험료의 증가는 2.3%에 불과함.
- 이는 최근 설계사 조직의 소폭 확대에 비추어 정예화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 억원)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회사직급	46.0	24.2	14.6	18.1	15.9	17.8	8.1
보험설계사	45.8	61.1	42.2	25.7	42.6	37.2	46.6
대 리 점	7.0	11.6	7.3	6.1	7.9	7.5	8.3
중개인	-	-	-	-	-	-	-
T/M	-	2.5	2.9	1.7	3.1	2.3	0.7
C/M	-	0.2	0.1	0.05	0.1	0.1	0.0
방카슈랑스	-	-	32.7	48.2	30.1	34.8	36.3
기 타	1.3	0.5	0.2	0.2	0.3	0.3	0.0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4,668	8,824	11,984	29,943	13,632	64,383	11,868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회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0부터 특별계정을 포함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 기존 판매채널은 과거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나, 연초 전통 채널에 의한 마케팅 강화에 따라 FY2004 1/4분기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의 수가 소폭 증가했음.

○ 대형 3사는 보험설계사를 늘린(4.0%) 반면 이외 생명보험사는 감소시켰으며, 특징적으로 중·소형사들이 대리점을 10.6% 증가시켰음.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및 생산성

(단위 : 명, 개, 만원)

구 분	FY2002	FY2003				FY2003
	4/4	1/4	2/4	3/4	4/4	1/4
임직원	26,726	26,356	26,231	25,616	26,172	26,201
보험설계사	151,064	145,613	144,457	144,666	143,498	145,496
생산성	1,993	-	2,125	-	2,289	-
대리점	7,267	7,416	7,604	7,406	7,219	7,268
생산성	4,672	-	6,034	-	5,899	-

주 : 각 상단 보험설계사생산성은 월평균 1인당 수입보험료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누적 보험설계사[대리점] 수입보험료

$$\frac{(기초보험설계사[대리점]수+기말보험설계사[대리점]수)/2}{\div \text{누적월수}}$$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김진익 선임연구원, 이정환 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손해보험 전체>

- FY2004 1/4분기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0% 성장한 5조 5,748억원으로 전년도 3/4분기 이후 성장이 꾸준히 회복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경우, FY2003 하반기 이후 회사별 범위요율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전년도 저성장에 대한 상대적 성장으로 10.1%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장기손해보험은 질병, 상해부문에 대한 꾸준한 수요와 더불어 최근 통합형 보험 판매 확대 등에 힘입어 9.2%의 성장률을 나타냄.
- FY2004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9조 5,18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8% 성장하여 성장 폭이 다소 둔화됨.
- 원수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증가 등 보험영업비용 확대에 의한 보험영업수지 감소와 투자영업수지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원수보험료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3.4	2.6	3.6	5.6	3.8	9.0
총자산	361,677	370,015	378,918	388,229	388,229	395,180
	2.2	2.3	2.4	9.8	9.8	1.8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율로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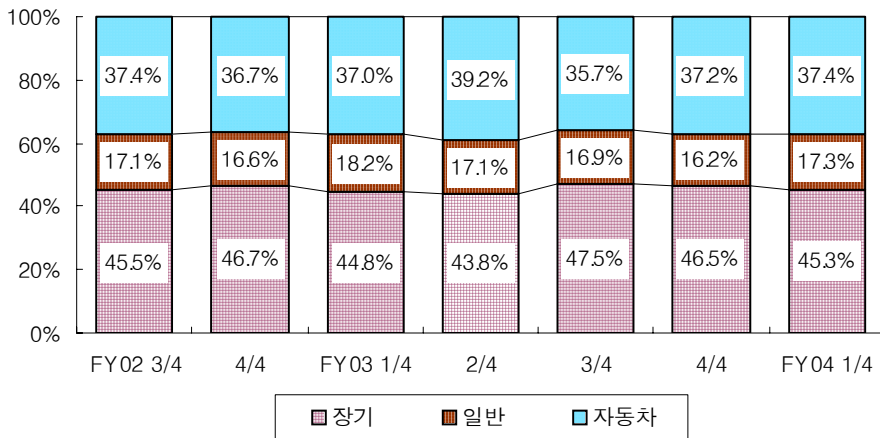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4 1/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37.4%, 장기손해보험 45.3%, 일반손해보험 17.3%의 점유율을 나타내었음.
-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0.4%씩 증가한 반면,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0.8%p 감소하였음.
- 특종보험이 0.2%p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일반손해보험 대부분의 종목에서 점유율이 축소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이며, 분기별 실적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4 1/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8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 성장하였으며, FY2003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낸 이후 4/4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되고 있음.
- 이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이 꾸준히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악화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 조치가 FY2003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전년도 저성장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은 2004년 6월 현재 2.7%로 전년 동월 6.8%에 비하여 급격히 감소하였음.
- 장기손해보험은 최근 내수 불황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FY2004 1/4분기 9.2%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함.
 - 질병보험 20.7%, 상해보험 11.3% 등이 급증세를 나타내었으며, FY2003 하반기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통합형보험이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을 뒷받침하였음.
 - FY2004 1/4분기 장기손해보험 전체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26.9%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통합형보험이 포함된 상해보험 부분의 초회보험료 증가율은 52.3%를 보이고 있음.
- 보증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2,353억원을 나타내었으며, FY2003 3/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FY2004 1/4 분기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1,26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5% 감소하였음.
 - 이러한 성장 감소세는 항공보험의 요율안정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FY2004 1/4 항공보험은 59.1%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냄.
 - 반면, 최근 수출 호조로 인하여 전체 해상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화보험은 21.0% 증가하였고, 선박보험은 6.4% 감소함.
- 화재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763억원을 시현하였으며, 공장물건의 보험료 급감(-13.1% 성장)에 기인하는 것임.
 - FY2004 1/4분기 공장물건의 신계약건수 및 신계약가입금액이 감소되었음을 감안할 때,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기업성 종합보험으로의 계약 이전과 경기불황으로 인한 보험가입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됨.
- FY2004 1/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5,083억원으로 11.3%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특종보험 종목별 성장률을 보면, 종합보험 7.7%, 책임보험 14.1%, 기술보험 44.1%, 상해보험 1.7% 등으로 나타냄.

<표 12>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825	761	881	692	3,160	763
	성장율	2.5	0.9	-3.1	-7.7	-1.8	-7.5
	구성비	1.6	1.4	1.5	1.3	1.5	1.4
해 상	보험료	1,396	1,385	1,151	1,310	5,242	1,263
	성장율	-7.3	-0.2	-11.0	-7.6	-6.5	-9.5
	구성비	2.7	2.6	2.0	2.5	2.5	2.3
자동차	보험료	18,939	20,662	20,311	19,693	79,606	20,851
	성장율	-2.0	-1.2	-1.1	7.3	0.6	10.1
	구성비	37.0	39.2	35.7	37.2	37.2	37.4
보 증	보험료	2,423	2,261	2,259	2,475	9,419	2,353
	성장율	11.0	1.2	-6.4	-2.2	0.6	-2.9
	구성비	4.7	4.3	4.0	4.7	4.4	4.2
특 종	보험료	4,546	4,454	5,140	3,933	18,073	5,083
	성장율	5.7	3.1	10.7	13.3	8.0	11.8
	구성비	8.9	8.4	9.0	7.4	8.5	9.1
해외 원보험	보험료	137	155	163	173	628	208
	성장율	-4.6	27.3	11.9	13.3	11.4	51.9
	구성비	0.3	0.3	0.3	0.3	0.3	0.4
장 기	보험료	20,871	20,996	21,801	22,126	85,794	22,795
	성장율	8.1	6.5	7.2	6.5	7.1	9.2
	구성비	40.8	39.8	38.3	41.8	40.1	40.9
개 인 연 금	보험료	1,704	1,705	1,716	1,748	6,873	1,746
	성장율	2.6	1.3	0.9	0.4	1.3	2.5
	구성비	3.3	3.2	3.0	3.3	3.2	3.1
퇴 직 보 험	보험료	322	388	3,488	751	4,949	686
	성장율	24.7	37.6	17.0	-14.6	12.4	113.2
	구성비	0.6	0.7	6.1	1.4	2.3	1.2
계	보험료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성장율	3.4	2.6	3.6	5.6	3.8	9.0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별 시장점유율>

- FY2004 1/4분기 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격차 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전업사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1.0%로 전년 동기 대비 1.2%p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는 23.7%로 0.9%p 감소하였음.
 - 특히, 온라인자동차보험 전업사인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의 시장점유율이 0.7%p 증가함을 고려할 때, 일반 중소형사의 입지가 더욱 좁혀진 것으로 분석됨.
 - 전업사의 경우 보증보험사의 시장 축소로 인하여 0.5%p 감소하였고, 외국사는 전년 동기 대비 0.2%p 증가한 1.0%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냄.
-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0.1588로 FY200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표 13>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연간	1/4
점유비	상위4개사	69.8	70.1	70.3	70.6	70.6	71.0
	일반사 계	94.4	94.6	94.7	94.6	94.6	94.7
	전 업 사	4.8	4.5	4.4	4.5	4.5	4.3
	외 국 사	0.8	0.8	0.9	0.9	0.9	1.0
허 핀 달 지 수		0.1555	0.1578	0.1579	0.1576	0.1576	0.1588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아메리카, 미쓰이 6개사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누적기준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의 총비용〉

- FY2004 1/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에서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한 2,916억원을 나타냄.
-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보험영업수지는 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당기순이익은 1,877억원으로 더욱 축소되었음.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수지는 원수보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확대에 따른 보험영업비용 증가로 흑자폭이 감소하였음.
- 투자영업이익은 주식시장 침체 등 투자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8.9% 감소한 3,561억원을 기록함.

<표 14> 손해보험회사 총수의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총 수 익	보험영업	47,545	95,760	145,055	195,477	49,897
	투자영업	5,896	11,631	16,571	23,056	5,736
	기 타	830	1,584	5,384	6,713	1,119
	계	54,271	108,975	167,009	225,245	56,751
총 비 용	보험영업	47,263	96,480	147,472	201,558	49,719
	투자영업	1,503	3,052	5,452	8,102	2,175
	기 타	1,439	2,780	6,182	8,199	1,276
	계	50,205	102,313	159,106	217,859	53,170
수 지 차	보험영업	283	-720	-2,418	-6,081	178
	투자영업	4,393	8,579	11,120	14,954	3,561
	기 타	-609	-1,196	-798	-1,487	-157
	계	4,067	6,662	7,904	7,387	3,581
법 인 세		769	1,244	1,453	1,751	665
당기순이익		3,298	5,418	6,451	5,635	2,916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4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0.5%p 감소한 97.9%를 기록함.
 - 합산비율의 하락은 손해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율의 하락에 기인하는 것임.
 - 사업비율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9%p 하락한 21.8%를 기록함.
- FY2004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손해율은 전년 동기대비 2.4%p 증가한 76.1%를 기록함.
 - 장기보험은 장기보험의 저축성보험료적립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손해율이 전년 동기대비 5.0%p 증가한 85.9%를 기록함.
 - 반면, 자동차보험은 FY2003 하반기 이후 회사별 범위요율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효과로 손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표 15〉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4/4	1/4	2/4	3/4	4/4	1/4
손해율	화재보험	54.3	62.7	63.9	61.6	61.7	52.7
	해상보험	51.6	45.7	53.6	57.4	57.7	61.3
	자동차보험	68.4	72.9	74.8	75.8	76.7	71.6
	보증보험	42.0	33.8	10.1	23.8	44.1	46.6
	특종보험	47.5	43.1	50.9	51.0	57.8	43.1
	해외원보험	50.4	46.5	47.7	48.5	47.5	13.2
	장기보험	81.5	80.9	80.5	81.3	82.4	85.9
	개인연금	118.7	114.6	115.6	116.1	121.8	117.9
	전 체	72.9	73.7	73.8	75.2	77.6	76.1
사업비율		25.5	24.7	25.2	24.8	24.3	21.8
합산비율		98.4	98.4	99.0	100.1	101.9	97.9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산 운용>

□ FY2004 1/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저금리 지속과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0.7%p 하락한 6.9%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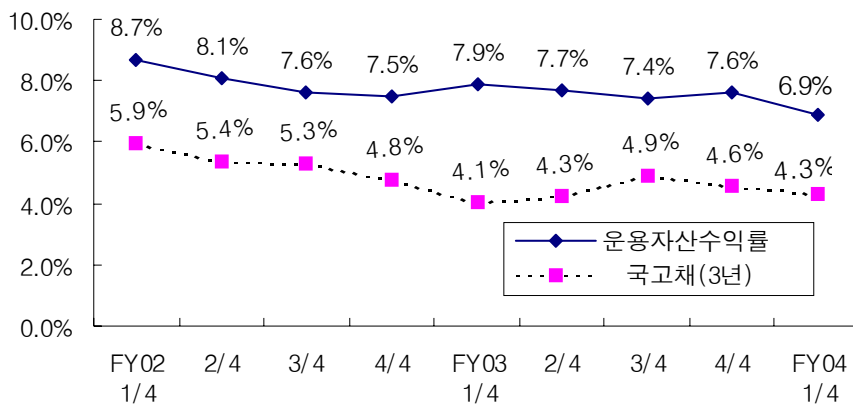
○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의 하락이 지속되고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유가증권의 투자수익률은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1.2%p 감소한 7.3%를 기록함.

○ 반면, 대출자산의 투자수익률은 유가증권의 투자수익률보다 0.9%p 높은 8.2%를 기록함.

- 해외유가증권의 투자수익률은 전분기 대비 0.8%p 하락한 8.0%를 기록함.

<그림 4>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총자산에서 비운용자산과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자산수익률 = (투자영업수익×2)/(기초자산+기말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4 1/4분기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주가하락에 따라 주식보유비중이 축소된 가운데, 다른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대출채권과 장기채권의 보유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손보사들이 보수적인 자산운용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줌.

- 해외유가증권의 보유규모는 전분기 대비 11.3% 증가한 1조 786억원이며, 운용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를 기록함.

<표 16>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3								FY2004	
	1/4		2/4		3/4		4/4		1/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5.2	4.5	5.1	4.2	5.7	3.8	4.9	4.1	5.1	4.1
유 가 증 권	54.6	8.8	54.7	8.6	54.3	8.1	54.7	8.5	54.6	7.3
○ 상품유가증권	17.7	11.4	16.9	10.9	14.3	11.0	15.1	10.5	14.7	7.3
- 주 식	0.7	107.7	0.9	71.6	1.1	85.8	0.9	103.3	0.7	21.2
- 채 권 등	12.0	9.6	10.5	10.0	8.7	9.0	8.8	8.8	9.2	7.4
- 수익증권	4.9	5.3	5.5	5.6	4.5	5.3	5.4	5.1	4.8	5.1
○ 투자유가증권	36.9	7.5	37.8	7.5	39.9	6.9	39.7	7.6	39.8	7.3
- 주 식	5.5	3.9	5.7	5.8	6.5	5.0	6.7	6.2	6.0	3.0
- 채 권 등	31.1	8.1	31.9	7.5	33.1	7.2	32.7	7.8	33.6	8.2
- 수익증권	0.3	0	0.2	5.0	0.3	2.8	0.3	15.2	0.3	0.9
대 출 채 권	16.8	8.4	17.1	8.6	17.3	8.7	18.1	8.6	18.5	8.2
부 동 산	9.0	3.3	8.9	3.1	8.9	3.0	8.7	3.0	8.5	2.9
운 용 자 산 계	85.7	7.9	85.9	7.7	86.2	7.4	86.4	7.6	86.7	6.9
비 운 용 자 산	14.3	-	14.1	-	13.8	-	13.6	-	13.3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7.2)	6.8 -	100 (97.2)	6.7 -	100 (96.6)	6.4 -	100.0 (96.7)	6.6 -	100.0 (96.8)	6.1 -
특별계정 자산	2.8	-	2.8	-	3.4	-	3.3	-	3.2	-
총 자 산	100.0	6.6	100.0	6.5	100.0	6.2	100.0	6.4	100.0	5.9

주 :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수치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4 1/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은 은행의 판매 확대 전략으로 전분기 대비 0.9%p 증가한 1.3%를 기록함.

○ 모집채널별 원수보험료 중 방카슈랑스의 원수보험료는 718억원임.

- 장기보험에서의 원수보험료는 전분기 대비 82.3% 증가한 522억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온라인보험시장 점유율은 보험사의 온라인보험시장 진출확대로 전분기 보다 소폭 증가한 5.7%를 나타냄.

〈표 1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4/4	1/4	2/4	3/4	4/4	1/4
회사직급	22,179	5,019	10,190	14,833	19,323	4,788
	11.0	9.9	9.9	9.5	9.3	8.7
보험설계사	74,411	18,021	36,877	55,697	74,465	19,769
	36.9	35.3	35.7	35.6	35.7	35.9
대 리 점	102,932	26,130	52,676	78,901	105,607	27,551
	51.1	51.4	51.0	50.4	50.6	50.0
중개인	-	248	577	1,378	1,791	486
	-	0.5	0.6	0.9	0.9	0.9
TM	-	755	1515	3,153	3,901	1,061
	-	1.5	1.5	2.0	1.9	1.9
CM	-	231	460	974	1,168	273
	-	0.5	0.4	0.6	0.6	0.5
방카슈랑스	-	-	62	401	813	718
	-	-	0.1	0.3	0.4	1.3
공동인수	2,019	436	863	1,307	1,727	416
	1.0	0.9	0.8	0.8	0.8	0.8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생산성>

□ 통합보험 등 장기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 조직의 확대와 더불어 전문성 강화 노력으로 전분기 대비 보험설계사 생산성(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은 향상되고 있음.

○ 반면, 대리점의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음.

<표 18>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4/4	1/4	2/4	3/4	4/4	1/4
임 직 원	20,886	20,569	20,768	20,800	21,207	21,204
	106,191.8	24,402.6	49,107.0	71,314.6	91,115.4	22,580.3
보험설계사	54,291	56,762	57,063	59,286	60,178	62,356
	137,060.2	31,748.7	64,625.6	93,945.9	123,741.4	31,702.7
대 리 점	50,877	50,828	51,068	50,021	48,217	48,352
	202,316.3	51,409.6	103,148.6	157,735.0	219,024.1	56,980.5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신동현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1. 노동부,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2006년 도입 예정

<배경 및 기본방향>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
목적으로 도입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노후대책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요청됨.

-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대부분 생활비용으로 충당되어 노후 소득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세제를 통한
연금제 선택
지원

□ 기본방향은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도입함.

-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 실시여부는 노사합의에 맡기 되, 세제를 통해 연금제 선택을 지원함.
- 퇴직연금제 형태는 사업장 및 근로자 속성별로 선호가 다르므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함.

이직을
고려하여
개인퇴직계좌
마련

- 직장 이동시에도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퇴직 적립금을 누적하여 통산하는 장치(개인퇴직계좌)를 마련함.

□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의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함.

- 부담금 납부, 적립금 운용, 퇴직연금사업자 요건 강화 등

□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함.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의 주요내용>

**확정급여형은
퇴직보험
보완형태로
도입**

- ☐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함.
 - 현재 퇴직보험 가입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사협의 내지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 제도설정 절차를 제도화함.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것을 근로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함.
 - 연금지급을 명시하여 세제상 혜택 부여 근거를 강화함.
- ☐ 사외적립금의 적립수준을 설정함.
 - 확정급여형은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적립금 수준은 사업장 실정에 맞추어 노사가 협의하여 책정함.
- ☐ 자산관리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짐.
- ☐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은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되 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함.
 -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 이상인 자는 연금지급을 원칙으로 함.

**확정기여형은
사용자
부담수준 일정,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영**

- ☐ 사용자 부담수준은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 당 30일(약 1월분)의 임금(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1/12(8.33%)”로 설정함.
- ☐ 적립금 운영은 일정한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만 허용함.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스스로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투자 위험과 기회에 직접 노출되므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원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투자한도 설정 등 보완장치를 강구함.

- 급여수준 및 수급자격은 근로자별로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연금지급방법은 확정급여형과 동일함.
-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유예기간 적용**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1월 이상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함.
-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확대시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주의 부담률은 국민연금의 예를 참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1/2에서 시작, 13년에 조정 완료함.
- 직장이동성 을 감안한 통산장치로 개인퇴직계좌 도입**
- 직장이동성 및 단기 근속자 증가, 중간정산제 및 연봉제의 확산 등으로 퇴직일시금이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시금이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동 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할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시키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임.
-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음.
- 개인퇴직계좌의 운영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는 방법(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취급 금융기관, 적립금의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확정기여형과 동일함.
- 급여수준과 급여수급자격은 가입자별로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상이하며, 55세이후에 연금수급이 가능함.
-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이 중요**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교육·정보제공 및 기금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 및 감독이 중요함.
- 사용자는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고의 징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운영이 법령,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시정, 개선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은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하며, 사무관리업무에 있어서 과당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됨.
 -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약속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로자 또는 당해 상대방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됨.
 - 근로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근로자의 이익에 추가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됨.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기 위하여 매년 퇴직연금운영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신동현 연구원)

2. 금감원, 보험회사에 대한 자율규제제도 시행

2004. 9월부터
자율규제제도
시행

□ 2004년 9월부터 보험회사가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분야에 대해 자체점검과 진단을 실시, 취약분야의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고쳐 나가는 “보험사 자율규제 제도”가 시행됨.

○ 보험회사들이 자기책임하에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통제에 나섬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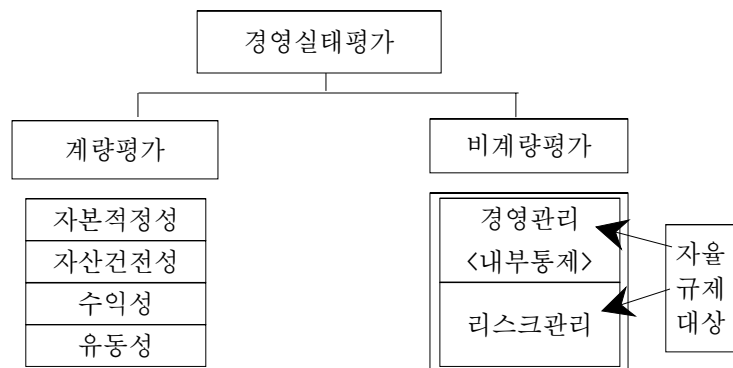
내년 3월말 경
운영실태 점검

○ 올 연말까지 보험회사들이 자율규제 기반을 구축하고 자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 3월경에 보험회사의 자율규제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보험회사에 대한 자율규제 실시 방안 주요 내용〉

자율규제대상,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 자율규제제도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당국이 배포한 표준매뉴얼에 따라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 대하여 자체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분야 및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해나가는 시스템임.



**표준매뉴얼은
업무처리방법
기술,
체크리스트
명시**

□ 표준매뉴얼에서는 리스크관리 분야와 내부통제 분야에 대하여 자율규제 모범규준으로서의 업무처리방법 등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음.

○ 리스크 종류별, 공통부문 및 단위업무별로 체크리스트를 명시 하도록 함.

□ 표준매뉴얼에 따른 평가방법은 보험회사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5단계로 평가함.

**책임경영기반
조성과
내부통제 기능
강화 효과**

□ 자율규제제도의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로 보험회사의 책임경영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임.

○ 보험회사는 자기책임하에 내부업무의 문제점을 스스로 점검 및 진단하고 취약분야 및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은 물론 자정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회사 내부의 준법감시 및 감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매뉴얼에 의한 평가시스템의 도입 및 정착을 통해 준법감시 및 감사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작동될 것임.

(신동현 연구원)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음주·무면허운전 자기부담금제〉

-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제 시행**
-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후 보험가입자에게 일정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8월 22일부터 시행됨.
 -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유 및 금액(자배법시행령 제14조의2, 시행규칙 제7조의2)
 - 보험가입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구상하도록 함.
 -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 200만원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 50만원
 - 자기부담금제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의 자기부담금액 수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함.
 - 종합보험의 경우 대인피해 200만원, 대물피해 5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 상향〉

-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액을 2배 상향 조정**
- 대다수의 자동차보유자(94.9%)는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일부 자동차보유자(5.1%)는 책임보험을 만기에 갱신하지 못하거나 지연 가입하고 있음.
 -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 따라서, 과태료부과액을 현행의 2배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자동차보유자가 적기에 보험을 갱신 또는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 주요내용(자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별표5)

<표 1>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한도액

구분		이륜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현행	한도액	100,000원	300,000원	1,000,000원
	일가산금액	600원	2,000원	8,000원
	기본금액	3,000원	5,000원	30,000원
개선	한도액	200,000원	600,000원	종전과 동일
	일가산금액	1,200원	4,000원	종전과 동일
	기본액	6,000원	10,000원	종전과 동일

주 : 미가입기간 10일까지는 기본금액, 11일째부터는 일가산금액을 가산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개정>

- 자동차사고환자 선택진료비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개정안을 고시함.

**선택진료비
추가징수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예방**

- 교통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 추가징수 항목 규정
 - 현행 선택진료비 대상 8개 항목중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청구시 보험회사가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병원측이 선택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도 선택진료비용을 추가로 산정하거나 청구할 수 없음.
 - 선택진료비 추가징수 항목은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평수영상진단료(CT제외)임.
 - 선택진료비 추가징수 인정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과와 관련된 의료기관, 보험사, 교통사고 환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입원료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체감제로

중증 환자의

진료 기피

경향을 개선

□ 교통사고환자 입원료 체감제 완화

- 입원료 체감제란 입원후 일정기관이 지나면 해당입원료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제도임.
- 교통사고환자의 입원료 산정기준 중 산재보험수가보다 낮게 고시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산재보험 기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증 교통사고환자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진료권을 보장하고자 함.

<표 2> 입원료 산정제도 변경

현행	개선안
- 의원, 병원, 종합병원에 적용 · 51일~150일 : 90% 산정 · 151일 이상 : 85% 산정 - 종합전문요양기관 : 입원료 100% 산정	- 의원, 병원에 적용 · 51일~150일 : 90% 산정 · 151일 이상 : 85% 산정 - 종합병원 : 입원료 100% 산정 - 종합전문요양기관 : 입원료 100%+병원관리료(35%) 가산

(조혜원 선임연구원)

4.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지급기준 발표

- 산재보상보험 등 지급기준 발표**
- 노동부는 2004년 9월1일부터 2005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 등을 고시함.
- 산재보험 최저보상금액 13.1% 인상**
-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을 경우 재해자와 가족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한 최저보상금액은 일액 37,020원에서 41,869원으로 13.1% 인상됨.
 - 2003년 기준으로, 장해·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6%에 이르는 12,8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됨.
 -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보상금액은 일액 145,800원에서 151,249원으로 3.7% 인상됨.
 - 이는 연금 수급자의 전체 평균임금의 약 2.5배 수준에 달함.
- 장의비 최저금액 4.3% 인상**
-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10,360,275원, 최저금액은 7,078,875원으로 각각 4.3%, 6.1% 인상됨.
 - 간병료는 요양중인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 4.1% 인상되어, 간호사 간병인 경우 50,360원, 간호조무사 또는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6,539원, 가족 등 기타 간병인의 경우 34,977원으로 인상됨.
- 간병료 평균 4.1% 인상**
- 간병료는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되며, 철야 간병시 50%가 가산됨.
- 간병급여 4.1% 인상**
- 간병급여는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전년에 비해 4.1% 인상되어 상시간병의 경우 일액 34,977원, 수시간병의 경우 23,318원이 지급됨.

- 노동부는 2004-2005년에 적용되는 이번 인상으로 422억원의 수혜가 약 48,000명에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함.

<표 1> 최고보상기준기준금액 고시 내역

(단위 : 원, %)

구분		현행	고시금액	인상율
최고보상기준금액(일)		145,800	151,249	3.7
최저보상기준금액(일)		37,020	41,869	13.1
장의비 최고금액		9,932,840	10,360,275	4.3
장의비 최저금액		6,669,440	7,078,875	6.1
간병료 (일)	간호사	48,470	50,360	3.9
	간병급여(일)	35,100	36,539	4.1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35,100	36,539	4.1
	가족·기타 간병인	33,600	34,977	4.1
간병급여 (일)	상시간병	33,600	34,977	4.1
	수시간병	22,400	23,318	4.1

(이정환 연구원)

5. 변액유니버설보험 인기

저금리,
주가상승으로
변액보험 인기

□ 최근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예금금리가 3.8%까지 떨어지고 주식시장의 상승세와 더불어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변액보험이 잘 팔리고 있음.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펀드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은 물론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202.8% 증가한 2,785억원을 기록함.

변액보험,
전분기대비
증가율 62.2%

○ 2004년 1/4분기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도 하반기이후 실적을 상회한 438억원을 기록함.

<표 1>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FY2003 3/4	FY2003 4/4	FY2004 1/4
변액보험	3,210	2,356	2,785
변액유니버설보험	167*	270	438

주 : 1) * 2003년8월~12월 실적임.

2) 월말보고서에서 특별계정의 기타항목을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봄.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변액보험과 유니버설보험의 장점을 합해 놓은 상품임.

○ 동 상품은 자유로운 보험료 납입과 펀드실적에 따른 높은 수익성을 겸비함.

○ 또한 보험료를 매월 적금처럼 납입하다가 여유자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추가 적립도 가능하고, 자금필요시 중도 인출도 가능함.

**변액유니버설,
적립형과
종신보험으로
구분**

-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변액유니버설적립보험과 종신보험과 결합한 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이 있음.
- 현재 삼성, 대한, 교보, 메트라이프, PCA, 푸르덴셜, 알리안츠, 동양 등 8개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음.
- 메트라이프가 2003년 7월부터 변액유니버설보험을 처음 판매함.

<표 2> 각 보험회사별 변액유니버설보험 판매상품

보험사	상품명
대한	무배당대한변액유니버설종신보험(채권형, 혼합형)
삼성	무배당삼성변액유니버설적립보험(채권형, 혼합형, 인덱스혼합형, 미국혼합형,일본혼합형)
교보	(무)교보변액유니버설(가산형)(주식혼합형,인덱스형,채권형, MMF형), (무)교보변액유니버설보험(보장형)(주식혼합형, 채권형)
메트라이프	(무)My Fund 변액유니버설보험(혼합안정형, 혼합성장형, MMF형, 우량공사채)
푸르덴셜	무배당 변액유니버설종신(혼합형, 안정혼합형)
PCA	무배당 PCA Dreamlink 변액유니버설보험(안정형1, 혼합형, 성장형, MMF형)

**자산운용형태에
따라 채권형과
주식편입비율이
30~50%인
혼합형으로
구분**

- 현재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과 주식을 30~50% 편입하는 혼합형 등으로 구분됨.
- 자산운용내역은 주식, 채권, 대출, 수익증권, 유동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메트라이프의 경우 최근 주가상승에 힘입어 주식편입 비율이 높은 혼합안정형과 혼합성장형의 연환산수익률이 각각 12.61%, 18.28%를 기록하고 있음(2004년 9월 21일 기준).

(신동현 연구원)

해외보험동향

1. 미국 동향

<미국 상반기 생명보험 시장 동향: 4년만의 10%대 성장>

미국 생보사
상반기

수입보험료 10%
증가

□ LIMRA는 2004년 상반기 74개 미국생명보험사 대상의 서베이를 통해 수입보험료가 4년 만에 10%대의 성장을 했다고 발표함.

○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04년 1분기 10%, 2분기 9%의 성장을 기록한 미국 생명보험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10% (연기준환산) 성장세를 보임.

○ 2004년 상반기의 급성장은 2003년 상반기의 마이너스 성장에 기인한 바 크며, 성장이 양호했던 2003년 하반기를 고려하면, 2004년 하반기 수입보험료는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상반기

사망보험금 9%
증가

□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할 때, 2004년 미국 생명보험 시장은 전년 대비 9% (연기준 환산) 증가세를 기록함.

<표 1> 미국 생명보험시장 규모

(단위 : 백만달러, 건)

구분	수입보험료			사망보험금			신계약건수		
	2003	2004	증가율	2003	2004	증가율	2003	2004	증가율
1분기	2,101	2,319	10%	315,079	347,061	10%	1,375,519	1,398,810	2%
2분기	2,161	2,363	9%	347,175	371,818	7%	1,481,476	1,455,846	-2%
3분기	2,139			332,361			1,378,737		
4분기	9,031			374,362			1,483,648		
전체*	4,262	4,682	10%	662,254	718,880	9%	2,856,995	2,854,656	0%

주 : *는 연기준 환산임.

- 상반기 신계약건수 증가율 정체**
- 2004년의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건수는 연기준으로 환산하여 전년에 비해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1분기 2%, 2분기 -2%를 기록하여 연기준 환산 0%의 성장을 보임.
- 서베이 대상 절반이 10% 이상 수입보험료 증가**
- 총 74개 서베이 대상 중 1/2에 해당하는 보험사가 10%이상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기록함.
 - 1/3에 해당하는 생보사가 전년대비 20%이상 성장했으며, 1/3에 해당하는 보험사가 전년과 대비하여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함.
 - 2003년 상위 20개 생보사 중 5개사는 2004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유니버설 24% 증가**
- 2004년 생보상품 중 유니버설은 전체의 36%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전년대비 24% 증가율을 기록함.
 - 변액유니버설과 변액보험은 2004년 주식시장의 호조로 평균 3%의 성장을 함.

<표 2> 미국 생명보험 상품별 구성비 및 증가율

(단위 : %)

상품명	구성비		2003~2004 증가율
	2003	2004	
유니버설보험	35	36	24
변액보험	1	1	29
변액유니버설보험	15	15	2
사망보험	22	23	7
종신보험	27	25	-2
전체	100	100	10

- 2004년 생보상품 중 23%를 차지한 사망보험은 전년 대비 7%의 성장을 함.
- 2004년 생보상품 중 25%를 차지한 종신보험은 전년 대비 2%의 마이너스 성장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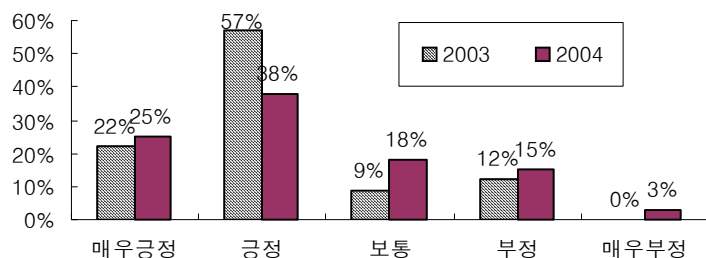
* 자료 : LIMRA International Research 2004 Report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Second Quarter 2004.

<2004년 미국 하반기 손해보험시장 전망: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미국 손보사 2004년 하반기 양호 전망

- Munich Re의 미국지사인 American Re는 50개 손보사 CEO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2004년 하반기 경영실적이 2003년 동기에 비해 좀 더 양호해질 것으로 전망함.
- 설문조사 대상자 중 81%는 2004년 하반기 경영실적이 전년과 같거나 양호해 질 것으로 응답함
- 설문대상자의 25%는 전년에 비해 2004년 하반기를 아주 밝게 보았고, 38%가 양호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18%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함.
- 전년에 비해 경영실적이 대단히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는 3%이었으며 약 15%는 전년에 비해 양호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2004년 하반기 손해보험회사 경영실적 전망



**미국손보사
2004년 합산
비율 100%
미만 전망**

- ☐ 손해보험 주식회사 CEO의 70%는 2004년 합산비율을 100%미만으로 전망함.
 - 45%의 응답자가 2004년 합산비율을 95%미만으로 전망했으며, 25%는 합산비율이 95%이상 100%미만으로 예측함.
 - 6%의 응답자만 105%이상 110%미만으로 전망함
- ☐ 손해보험 상호회사 CEO의 73%는 2004년 합산비율을 100%미만으로 전망함.
 - 21%의 응답자가 2004년 합산비율을 95%미만으로 전망했으며, 52%는 95%이상 100%미만으로 예측함.
 - 26%의 응답자는 100%이상 105%미만으로 전망함.

**2004년 하반기
까지 Hard
Market 전망**

- ☐ 응답자의 18%는 Hard Market이 이미 종료되었다고 전망했으며, 40%는 Hard Market이 200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28%는 2005년까지, 14%는 2006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대부분의 손보사는 보험료가 상승했던 Hard Market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급격히 인하하지 않고 적정보험료와 적정 계약조건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주요 이슈는
체계적
언더라이팅과
적정가격**

- ☐ 손해보험사의 중요 이슈와 관련하여 중복 응답 중 53%는 체계적 언더라이팅과 적정 가격을 중요 이슈로 꼽았으며, 30%는 각 손보사의 현행 등급 유지를, 30%는 재보험비용과 범위를 지적함.
- ☐ 비교우위 요인과 관련하여 중복 응답 중 63%는 언더라이팅 능력 (risk selection 및 pricing)을, 40%는 클레임 처리와 관리를, 30%는 policy processing과 충분한 자본을 지적하였음.

**최우선
개정 대상
법규는
불법행위관련
일반법**

- 보험산업 전체 이슈와 관련하여 중복 응답 중 40%는 걱정 요
을 신고 및 인가를, 38%는 저금리와 낮은 금융자산 수익률을,
33%는 제한적인 법규를 지적하였음.
- 연방업법 상정과 관련하여 배상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불법행위
관련 일반법 개정(General Tort Reform)을 개정 대상 법규로 제
시했고, 석면배상책임법 개정(Asbestos Liability Reform)과 일몰
법인 테러리스크보험법(Terrorism Risk Insurance Act)의 부활을
두 번째로 꼽았으며, 의료과실법 개정(Medical Malpractice
Reform)을 세 번째로 제시했음.
- 테러리스크보험법이 부활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로
38%는 인수 대상에서 테러리스크를 제외한다고 응답했으며,
23%는 테러리스크를 인수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재보험에 출
재한다고 응답했음.

* 자료 : Business Insurance, 2004. 6.

(이정환 연구원)

2. EU 동향 : 영국 보험시장 동향

<영국 저축성보험 시장, 건조한 증가세 지속>

저축성보험,
전년동기대비
6% 성장

- 영국보험자협회(ABI)는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함.
- 2004년 2/4분기 저축성보험의 신계약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6%(연기준환산) 성장세를 보임.
- 특히 집합적 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22% 증가하여 1999년 1분기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표 1> 영국 생명보험 상품별 초회보험료

(단위 : 백만 파운드)

구분	일시납					저축성보험*	
		생명	연금	연금보험	집합투자기구	단체	월납환산
2003	1/4	4,141	2,276	2,515	1,927	1,473	2,335
	2/4	4,271	2,113	2,412	2,326	1,223	2,471
	3/4	3,905	2,991	2,243	1,804	1,248	2,354
	4/4	5,319	2,552	2,033	1,701	1,303	2,446
2004	1/4	4,907	2,054	2,058	2,456	1,431	2,403
	2/4	5,095	2,070	2,204	2,941	1,151	2,610

주 : 저축성보험합계는 일시납과 월납을 합한 금액임.

독립재무설계
사,저축성보험
점유율 3.4%p
상승

- 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단체를 제외한 저축성보험(일시납기준)은 독립재무설계사가 6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표 2> 저축성보험(일시납)의 채널별 시장 점유율

(단위 : %)

구분	독립재무설계사 (IFAs)	회사직급 및 전속대리점	직판
2002	60.7	30.9	3.1
2003. 2/4	57.9	31.1	5.2
2004. 2/4	61.5	26.7	7.6

* 자료 : ABI, LIFE INSURANCE Monthly, 2004. 8

<주택담보대출은 성장세 지속, 신용보험의 성장은 정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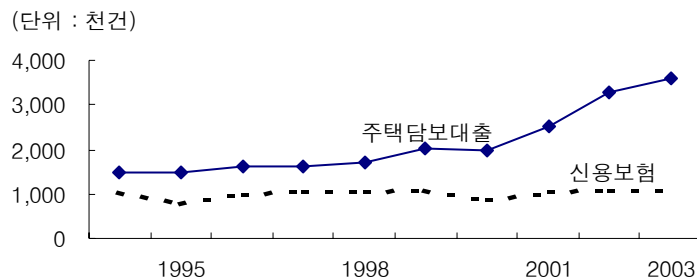
신용보험,
모기지대출
담보 비율 하락

- 영국보험자협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보험의 계약규모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25%의 주택담보대출자가 조기사망에 따른 부채의 미상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
- 주택담보대출자의 신용보험의 평균 미담보액은 40,000파운드에 이르며, 전체 규모로는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15%에 이름.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보험 담보의 격차 확대는 상당수 가정의 주택담보대출자 사망시 담보주택의 상실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나타냄.

신용보험,
담보비율 35%p
하락

- 최근 몇 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보험은 정체상태에 있음.
- 1994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부채의 연평균증가속도는 8.4%인 반면, 신용보험의 가입속도는 연평균 4.5% 밖에 안 됨.
- 1994년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신용보험의 담보비율은 68%였는데, 2002년에는 33%로 하락하였음.

<그림 1>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보험의 신계약 규모



* 자료 : ABI, LIFE INSURANCE Monthly, 2004. 8

<17~20세 보험가입자 수의 감소에 따른 사고율 감소>

**17~20세
운전면허소지자
는 감소 지속**

□ 영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가 3백만명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의 고객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17~20세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는 1990년대 초반 1백50만 명에서 약 1백만 명으로 50만명 정도 감소하였음.

○ 이는 최근 10년 동안 인구통계학적으로 17~20세 사이의 인구가 12%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임.

**주원인은
운행비용 증가,
고등교육의
확대**

○ 이와 더불어 자동차 운행비용의 증가와 자동차면허시험에 이론시험의 도입,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확대가 주원인으로 작용함.

□ 향후 17~20세 자동차운전자는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자동차운행비용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확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임.

**손해율은 감소,
수입보험료는
소폭 감소**

○ 50~59세의 자동차보험가입자 보다 7배 이상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는 17~20세 자동차보험가입 운전자의 감소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반면, 17~20세 자동차운전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21~29세의 자동차운전면허소지자가 거의 감소하지 않아서 보험료 수입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임.

* 자료 : ABI, GENERAL INSURANCE Monthly, 2004. 8

(신동현 연구원)

3. 일본동향

<손해보험회사 실적(FY2004 7월 기준) 발표>

**일본 손보사,
2004년 7월말
수입보험료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

- 일본 손해보험회사 10개사의 2004년도 7월말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고 전년말 보다 0.3%p 감소하였음.
- 당월 실적으로는 10개사 중 7개사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동경해상이 신종·상해·해상보험에서 호조를 보이며 전체 성장을 견인하였고, 누계 실적은 삼성주우해상이 전월에 이어 증가율 1위를 고수한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보험,
-1.3%성장으로
감소세 지속**

- 자동차보험은 2004년 7월말 현재 1조 1,809억엔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여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당월, 누계 실적 모두 일본흥아손보를 제외한 10개사 중 9개사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었으며, 누계 수입보험료 기준 손보재팬이 2,347억엔, 동경해상이 2,305억엔 순으로 높게 조사됨.
-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은 7월말 현재 3,190억엔으로 1.8% 감소하였으며, 전월에 이어 삼성주우해상, 아이오이손보, 일본화재 등 3개사 실적이 증가하였고, 누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손보재팬이 700억엔으로 가장 높음.

**화재보험 0.4%
증가**

- 화재보험은 7월말 수입보험료 3,121억엔으로 0.4% 증가하였으며, 누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은행 창구판매가 활발한 삼성주우해상이 593억엔으로 1위를 기록함.

**특종보험 5.3%
증가**

- 특종보험의 7월말까지의 보험료 합계는 2,771억엔으로 5.3% 증가하였으며, 각사별로는 동경해상이 7월간 수입보험료 207억엔으로 11.7%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 누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는 상위사는 모두 증가한 반면, 중하위사는 감소하는 등 격차가 벌어졌음.

상해보험 5.6% 증가 □ 상해보험은 7월말 현재 수입보험료 1,931억엔으로 5.6% 증가하여 손해보험 종목 중 최고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 누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일동화재를 제외한 9개사가 증가하였으며, 일본흥아손보는 대규모 단체계약 형태나 생보채널의 호조로 당월 성장률 9.4%를 기록함.

해상보험 5.4% 증가 □ 해상보험의 누적 수입보험료 949억엔으로 5.4% 증가하였으며, 동경해상이 당월 증가율 26.1%로 대폭 신장하여 누계 기준으로 9.7%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표 1> 일본 10개 손해보험회사 실적(2004년 7월말 기준)

(단위 : 백만엔, %)

구분	당월 기준	누계 기준
자동차보험	289,529	1,180,946
성장률	-2.1	-1.3
자배책보험	86,332	318,983
성장률	-3.5	-1.8
화재보험	77,008	312,099
성장률	-1.4	0.4
특종보험	68,888	277,103
성장률	5.0	5.3
상해보험	54,998	193,057
성장률	3.4	5.6
해상보험	23,506	94,931
성장률	11.0	5.4
손해보험 전체	600,764	2,377,120
성장률	-0.5	0.4

* 자료 : 保険毎日新聞, “10社合計, 0.4%増に”, 2004.8.17

<우체국보험 민영화 계획>

2004.8월
“우체국보험
민영화 기본
골자” 발표

□ 2004년 8월 일본 경제재정자문위원회는 우체국보험을 2017년까지 3단계를 거쳐 완전 민영화하기 위한 “우체국보험 민영화 기본 골자”를 발표함.

- 일본의 우체국보험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건전한 보험시장 발전 저해, 효율적인 금융시장 방해, 잠재적인 국민부담 등의 문제가 대내외적으로 지적되면서 민영화의 추진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2017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민영화 추진

□ “우체국보험 민영화의 기본 골자”는 ① 우정공사의 주식회사화 단계, ② 지주회사 단계, ③ 완전 민영화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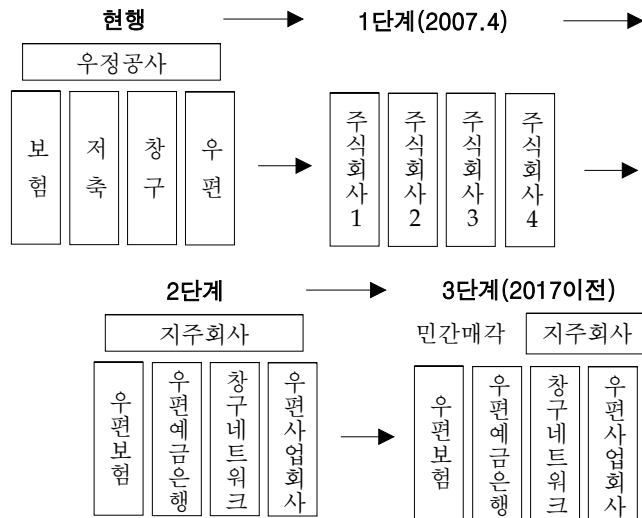
- 첫 번째 단계에서는 2007년 4월까지 우정공사의 4개 사업체를 자회사로 분사화시켜 정부 출자의 주식회사화 하고, 사업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등 향후 지주회사 전환에 대비함.
- 두 번째 단계는 완전 민영화에 대한 이행기간을 두고, 정부가 100%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4개의 우체국 사업체를 자회사화 함.
- 세 번째 단계는 2017년 이전까지 우체국보험 및 저축은행에 대한 정부 지분을 대폭 줄이거나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하여 민영화를 완료하는 것임.

창구네트워크,
우편사업회사,
우편예금은행,
우편보험회사 등
4개 주식회사
형태

□ 민영화 후의 최종적인 조직형태는 창구네트워크회사, 우편사업회사, 우편예금은행, 우편보험회사 등 4개 주식회사로 함.

- 창구네트워크회사는 우편, 우편예금, 우편보험회사에서 창구 업무를 수탁하고 지방 공공단체의 사무대행과 연금, 공공요금 수불 등의 공공적 업무도 담당함.
- 우편사업회사는 국제물류업무에 진출하는 것을 명기하고 우편예금은행과 우편보험회사는 민영화 후의 신규 계약분부터 정부 보증을 폐기함.

<그림 1> 우체국보험 민영화 계획



**민영화후
보험업법 등에
의거한 금융청의
검사, 감독 예정**

□ 한편, 일본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와 대등한 경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 주식회사 전환후 보험업법 등에 의거한 금융청의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부여할 예정임.

- 현재 우체국보험에 대한 규제는 주무관청인 총무성이 감독권한을 가지고 금융청에는 검사권한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두 번째 단계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들을 자회사로 둔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함.

□ 향후 일본 정부는 민영화 및 조기사행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민영화 법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2005년 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 자료 : 이상우, “일본의 우체국보험 민영화 계획과 시사점”, WII제58호, 2004. 8. 10

<개호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2005년
개호보험제도에
대한 검토 시행

□ 2000년 4월부터 도입된 공적개호보험제도는 「개호보험법」에 따라 2005년 보험료 및 급부 수준을 포함한 재검토를 시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현재 개호보험제도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함.

□ 현재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재원은 보험료와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개호보험의
재원은 보험료와
세금으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보험운영

○ 개호보험 재원의 1/2은 가입자(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로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의료보험의 보험료와 일괄하여 납부하며, 회사원의 경우에는 노사 반반씩 부담함.

○ 나머지 1/2은 세금으로서, 그 중의 절반(전체 재원의 1/4)은 국가(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 개호보험의 운영은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보험료나 개호서비스의 내용에 차이가 있음.

○ 개호보험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① 시도정촌 등의 창구에 신청하고, ② 방문조사원에 의한 1차 판정과 보험·의료·복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개호인정심사회에 의한 2차 판정을 통해 ③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호상태를 통보, 급부한도액이 결정됨.

□ 공적연금이나 의료보험제도와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급부에 대한 재원이 추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재정의 악화가 문제시되고 있음.

○ 2003년도 적자를 나타낸 지방자치단체는 170개로 적자에 동반된 차입금액은 43억엔으로 각각 초년도(2000년도)보다 단체수가 2배이상, 차입금액은 6배이상 되었음.

보험금부의
증가에 따른
재원 악화가
문제시되며,
보험료 부담도
증가

□ 증가하는 급부

- 노령인구의 증가나 의료기술의 진보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가 증가하고, 이에 수반되어 개호보험의 급부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급부체계의 변경으로 인한 급부 억제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적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개호보험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

<표 1> 개호보험 급부실적

구 분	2000	2001	2002	2003
개호인정자수	256만명	298만명	344만명	377만명
수급자수	약 200만명	236만명	269만명	약 290만명
개호비용총액	3조9,536억엔	4조5,652억엔	5조1,918억엔	5조4,000억엔

□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

- 개호비용(급부)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제1호피보험자는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3년동안 13.1% 증가하였으며, 제2호피보험자의 보험료는 53.4% 증가함.

<표 2> 개호보험 월평균보험료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제1호피보험자	2,911엔	2,911엔	2,911엔	3,293엔	3,293엔
제2호피보험자	2,263엔	2,647엔	3,007엔	3,293엔	3,472엔

**개호서비스
업체의 독립성,
신뢰성 확보 및
서비스 제공상의
문제 대두**

□ 공적개호보험제도가 도입되어 개호서비스가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가 증가하여 업체수가 2000년 제도 도입시에 비하여 17% 증가한 약 13만개로 나타났으며, 업체간 적절한 경쟁은 서비스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반면, 개호서비스 업체 운영에 있어서 몇몇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케어매니저(care manager)의 문제 : 개호판정을 받은 자에 대한 최적의 개호계획(care plan) 작성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저의 경우, 대부분 개호서비스 사업자에 고용되어 있어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독립성, 신뢰성 확보 문제가 대두됨.

○ 서비스 제공상의 문제 : 불필요한 개호 렌탈(침상 등)이나 서비스, 개호 렌탈 가격의 급등, 부정 청구 등 개호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 장래
예측, 논의를
통한 개혁 필요**

□ 이와 같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호보험제도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으며, 충분한 현상 분석과 장래 예측, 논의가 필요함.

○ 개호보험에 대해서는 개혁시 연금, 의료, 개호의 사회보장 전체를 일체적으로 지원하는 근본 개혁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기대함.

* 자료 : 保険毎日新聞, “介護”保険について-現状と問題, 2004.6.17

(조혜원 선임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3				CY200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 성장률	3.7	2.2	2.4	3.9	5.3	5.5
경상수지	-1,524	2,426	3,758	7,661	6,146	7,078
수 출	43,036	46,053	47,828	56,900	59,279	63,945
수 입	44,223	41,711	42,971	49,922	52,741	55,272
실업률	3.6	3.3	3.3	3.4	3.8	3.3
금리	국고채(3년)	4.62	4.16	4.11	4.82	4.50
	회사채(3년)	5.38	5.46	5.05	5.58	5.30
소비자물가지수	109.8	110.5	110.8	111.7	113.4	114.2
환율	원/달러	1,254.60	1,193.00	1,150.10	1,192.6	1,146.6
	엔/달러	119.935	119.74	111.79	106.99	105.84
종합주가지수	535.70	669.93	697.52	810.71	880.50	785.79
외환보유고	123,825	131,660	141,535	155,352	163,557	167,030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CY2003				CY2004	
	1/4	2/4	3/4	4/4	1/4	2/4
보 험	45,805	50,356	47,189	88,743	48,649	64,808
생명보험	30,629	34,893	34,893	74,824	37,604	48,549
손해보험	15,176	15,443	12,296	13,919	11,045	16,259
은 행	23,484	73,895	-30,594	189,814	-67,109	37,239
일반계정	45,937	144,380	1,512	221,476	-11,707	40,699
신탁계정	-22,453	-70,485	-32,106	-31,662	-55,402	-3,460
증 권	35,535	-2,503	-6,525	5,843	-5,145	5,049
투 신	-80,618	-90,539	63,286	-178,020	170,435	-14,380
총 금	24,512	-61,400	-21,375	-38,056	-55,402	7,090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보험료	91,424	23,901	26,555	37,028	28,192	115,676	28,266
	성장률	22.0	11.8	20.0	56.8	16.0	26.5	18.3
	구성비	18.6	21.0	23.1	23.9	23.4	23.0	23.3
사망보험	보험료	211,701	55,609	55,989	57,714	60,047	229,359	61,844
	성장률	21.4	10.5	6.3	7.0	9.7	8.3	11.2
	구성비	43.1	48.8	48.8	37.3	49.9	45.5	51.0
생사혼합보험	보험료	110,392	23,465	22,985	26,139	21,916	94,505	20,028
	성장률	-14.1	-15.2	-14.5	-9.5	-18.7	-14.4	-14.6
	구성비	22.5	20.6	20.0	16.9	18.2	18.8	16.5
변액보험	보험료	1,976	920	1,136	3,210	2,356	7,621	2,785
	성장률	-	887	682.7	372.6	122.5	285.7	202.8
	구성비	0.4	0.8	1.0	2.1	2.0	1.5	2.3
개인보험계	보험료	415,493	103,895	106,665	124,091	112,510	447,161	112,923
	성장률	10.0	4.4	4.8	15.8	5.1	7.6	8.7
	구성비	84.7	91.1	92.9	80.1	93.6	88.7	93.2
단체보험	보험료	75,175	10,108	8,094	30,836	7,725	56,764	8,262
	성장률	-21.6	-37.3	-33.1	-19.6	-10.3	-24.5	-18.3
	구성비	15.3	8.9	7.1	19.9	6.4	11.3	6.8
전체	보험료	490,668	114,004	114,759	154,927	120,235	503,925	121,185
	성장률	3.6	-1.4	0.7	6.5	3.9	2.7	6.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지급보험금	52,624	13,605	13,687	15,399	17,556	60,247	15,433
	증가율	-18.9	18.6	12.7	22.9	6.8	14.5	13.4
	지급률	57.6	55.9	51.5	41.6	62.3	52.1	54.6
사망보험	지급보험금	55,377	16,782	17,795	19,077	20,773	74,428	20,345
	증가율	19.8	44.3	30.2	34.7	30.7	34.4	21.2
	지급률	25.9	30.0	31.8	33.1	34.6	32.5	32.9
생사혼합보험	지급보험금	104,155	33,347	31,324	28,627	26,875	120,173	25,356
	증가율	-10.4	53.1	40.0	16.1	-24.0	15.4	-24.0
	지급률	94.4	142.1	136.3	109.5	122.6	127.2	126.6
변액보험	지급보험금	42	70	106	206	324	706	399
	증가율	-	4886	3143	757	2382	1589	468.5
	지급률	1.2	7.6	9.3	6.4	13.7	9.3	14.3
개인보험계	지급보험금	212,197	63,805	62,911	63,310	65,528	255,554	61,534
	증가율	-6.6	42.0	30.6	23.2	-3.2	20.4	-3.6
	지급률	51.1	61.4	59.0	51.0	58.2	57.2	54.5
단체보험계	지급보험금	81,983	15,306	12,639	16,793	17,103	61,840	11,101
	증가율	-29.5	-20.1	-12.5	-45.8	-1.5	-24.6	-27.5
	지급률	109.1	151.4	156.2	54.5	221.4	108.9	134.4
전체	지급보험금	294,181	79,111	75,550	80,103	82,631	317,394	72,635
	증가율	-14.4	23.4	20.6	-2.8	-2.9	7.9	-8.2
	지급률	60.0	69.4	65.8	51.7	68.7	63.0	59.9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 · 사업비증가율 ·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생존보험	사업비	14,145	3,098	3,269	4,187	3,564	14,118	3,377
	증가율	21.3	-8.4	-2.1	9.1	-0.6	-0.2	9.0
	사업비율	15.5	13.0	12.3	11.3	12.6	12.2	11.9
사망보험	사업비	60,359	14,523	14,764	15,913	16,504	61,705	15,836
	증가율	13.7	3.4	-2.9	0.1	8.5	2.2	9.0
	사업비율	28.5	26.1	26.4	27.6	27.5	26.9	25.6
생사혼합보험	사업비	8,119	1,712	1,739	2,188	2,009	7,647	2,078
	증가율	-27.3	-14.1	-9.6	-6.0	7.0	-5.8	21.4
	사업비율	7.4	7.3	7.6	8.4	9.2	8.1	10.4
변액보험	사업비	-	-	-	-	-	-	-
	증가율	-	-	-	-	-	-	-
	사업비율	-	-	-	-	-	-	-
개인보험계	사업비	82,623	19,333	19,773	22,288	22,077	83,470	21,291
	증가율	8.8	-0.5	-3.4	1.0	6.8	1.0	10.1
	사업비율	19.9	18.6	18.5	18.0	19.6	18.7	18.9
단체보험계	사업비	2,568	61.4	653	714	750	2,732	572
	증가율	12.6	7.3	16.4	2.2	1.9	6.4	-6.9
	사업비율	3.4	6.1	8.1	2.3	9.7	4.8	6.9
전체	사업비	85,191	19,947	20,426	23,002	22,827	86,202	21,863
	증가율	8.9	-0.3	-2.9	1.1	6.6	1.2	9.6
	사업비율	17.4	17.5	17.8	14.8	19.0	17.1	18.0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화 재	보험료	3,219	825	761	881	692	3,160	763
	성장율	6.1	2.5	0.9	-3.1	-7.7	-1.8	-7.5
	구성비	1.6	1.6	1.4	1.5	1.3	1.5	1.4
해 상	보험료	5,605	1,396	1,385	1,151	1,310	5,242	1,263
	성장율	5.9	-7.3	-0.2	-11.0	-7.6	-6.5	-9.5
	구성비	2.7	2.7	2.6	2.0	2.5	2.5	2.3
자동차	보험료	79,138	18,939	20,662	20,311	19,693	79,606	20,851
	성장율	6.1	-2.0	-1.2	-1.1	7.3	0.6	10.1
	구성비	38.4	37.0	39.2	35.7	37.2	37.2	37.4
보 증	보험료	9,362	2,423	2,261	2,259	2,475	9,419	2,353
	성장율	30.8	11.0	1.2	-6.4	-2.2	0.6	-2.9
	구성비	4.5	4.7	4.3	4.0	4.7	4.4	4.2
특 종	보험료	16,734	4,546	4,454	5,140	3,933	18,073	5,083
	성장율	20.6	5.7	3.1	10.7	13.3	8.0	11.8
	구성비	8.1	8.9	8.4	9.0	7.4	8.5	9.1
해외 원보험	보험료	564	137	155	163	173	628	208
	성장율	12.3	-4.6	27.3	11.9	13.3	11.4	51.9
	구성비	0.3	0.3	0.3	0.3	0.3	0.3	0.4
장 기	보험료	80,134	20,871	20,996	21,801	22,126	85,794	22,795
	성장율	10.0	8.1	6.5	7.2	6.5	7.1	9.2
	구성비	38.9	40.8	39.8	38.3	41.8	40.1	40.9
개 인 연 금	보험료	6,786	1,704	1,705	1,716	1,748	6,873	1,746
	성장율	1.6	2.6	1.3	0.9	0.4	1.3	2.5
	구성비	3.3	3.3	3.2	3.0	3.3	3.2	3.1
퇴 직 보 험	보험료	4,401	322	388	3,488	751	4,949	686
	성장율	53.6	24.7	37.6	17.0	-14.6	12.4	113.2
	구성비	2.1	0.6	0.7	6.1	1.4	2.3	1.2
계	보험료	205,944	51,163	52,768	56,910	52,901	213,743	55,748
	성장율	10.2	3.4	2.6	3.6	5.6	3.8	9.0

주 : 1) 성장율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FY2004
		4/4	1/4	2/4	3/4	4/4	1/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4.3	62.7	63.9	61.6	61.7	52.7
	사업비율	51.4	48.4	47.1	48.4	56.0	57.2
	합산비율	105.6	111.1	111.0	110.0	117.7	109.8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51.6	45.7	53.6	57.4	57.7	61.3
	사업비율	32.7	35.0	30.4	34.2	36.4	34.2
	합산비율	84.4	80.7	84.0	91.6	94.1	95.5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68.4	72.9	74.8	75.8	76.7	71.6
	사업비율	32.2	29.7	30.3	30.9	31.3	30.3
	합산비율	100.6	102.7	105.1	106.7	108.0	102.0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2.0	33.8	10.1	23.8	44.1	46.6
	사업비율	7.0	5.6	7.3	7.7	10.3	6.8
	합산비율	49.1	39.4	17.4	31.5	54.4	53.4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7.5	43.1	50.9	51.0	57.8	43.1
	사업비율	23.6	25.1	23.4	23.4	23.2	22.1
	합산비율	71.1	68.2	74.3	74.5	80.9	65.2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0.4	46.5	47.7	48.5	47.5	13.2
	사업비율	53.0	54.1	76.9	76.4	80.5	22.2
	합산비율	103.4	100.6	124.6	124.9	127.9	35.4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1.5	80.9	80.5	81.3	72.4	85.9
	사업비율	21.7	22.3	22.8	21.4	19.4	15.9
	합산비율	103.2	103.2	103.3	102.7	101.9	101.7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8.7	114.6	115.6	116.1	121.8	117.9
	사업비율	11.2	11.0	10.9	10.5	9.7	9.9
	합산비율	129.9	125.6	126.5	126.7	131.5	127.8
전 체	경과손해율	72.9	73.7	73.8	75.2	77.6	76.1
	사업비율	25.5	24.7	25.2	24.8	24.3	21.8
	합산비율	98.4	98.4	99.0	100.1	101.9	97.9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
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
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
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으
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패·해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2002-1	국내외 보험사기 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2002-7	방카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2004-2	퇴직연금 규제감독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태열, 2004. 7
2004-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리스크 관리전략 / 류건식, 김세환, 2004. 7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2004-2 보험회계의 국가별 비교 / 김해식 2004.6.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겸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 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영문 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 김재현, 2000.10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2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6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7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7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8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2004-2	보험회사의 방키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2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2
2004-4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3
2004-6	역모지기(Reverse Mortgage)시장전망 및 대응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4.3
2004-7	자동차 보험 관련 법령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4
2004-8	EU 지급여력제도 개선추세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6
2004-9	퇴직연금시대 도래와 보험회사의 진입전략 / 보험연구소, 2004.7
2004-10	손보사의 자연재해보험시장 참여 전략 / 손해보험본부, 2004.9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계간 _____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 간행물별 연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 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종로서적,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2004년 10월 5일

발행인	김	창	수
편집인	오	영	수

발행처 보험개발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등록 1997. 7. 15. (바-2873)
대표전화 (02) 368-4000
인쇄소 대화인쇄
전화 (02) 2265-1330

정가 6,000원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하여 주십시오.